

Style

조선일보

JULY 2019
vol.191



Cartier

PANTHÈRE DE CARTIER COLLECTION



CH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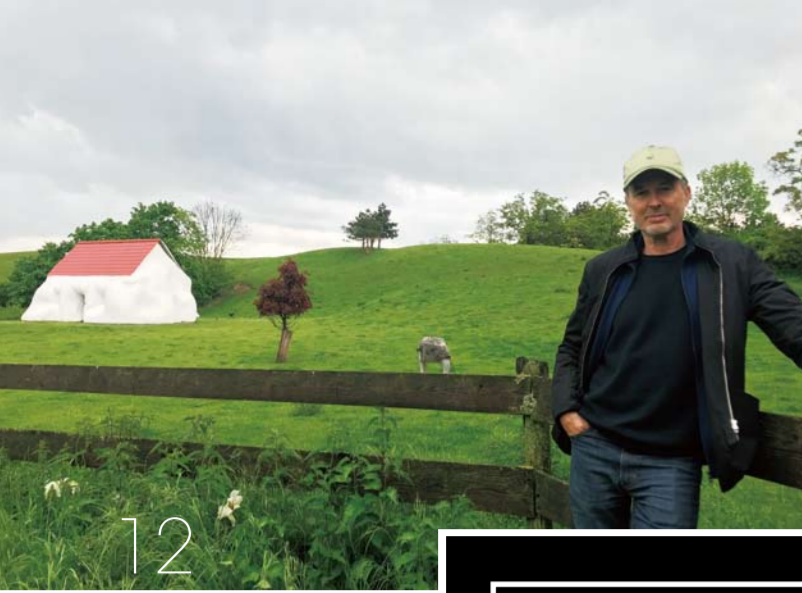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Perlée Collection
Rose gold, yellow gold
and diamond rings and bracelets.



12



주요리 겸 시계인 랜더드 카르티에 워치. 1980년 대의 오리지널 랜더드 카르티에 워치보다 좀 더 화려하게 재해석해 시각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더블 투어 브레이슬릿 모델은 핑크 골드 체인이 손목을 우아하게 감싸며 관능적 스타일을 연출한다. 표지의 시계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18K 핑크 골드 더블 투어 브레이슬릿을 매치한 스물사섯 모델이다. 문의 1566-7277

HOMO VIATOR

ART + CULTURE

34

35

36

38

39

34 OPEN AND LIVELY

35 부산, 아트 도시로서 가능성을 타진하다

36 MAKE IT NEW

38 삶과 죽음의 기억을 그리다

39 REMEMBER THE EXHIBITION



10

Style 조선일보

Issue.191 July 2019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희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민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l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이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RICHARD MILLE



CALIBER RM 37-01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

Jewel TRUE ICONS

새로운 감각을 입힌
매종의 아이코닉 주얼리.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72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포스트 다이아몬드 Y 아이링 1천2백만원대 **프레이드**. 알파벳 T 모티브가 연속 교차하는 옐로 골드 티파니 T 트루 브레이슬릿, T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패배 세팅한 로즈 골드 티파니 T 스퀘어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곡선기가 돋보이는 로즈 골드 바지르윈 디자인 레전드 벨로 브레이슬릿 1천2백만원대 **블라데리**. 기존 모델보다 얇은 두께의 자스트 영 글루 핑크 골드 링 1백30만원대 **까르띠에**. 9개의 아코아 진주를 옐로 골드 코에 일렬로 세팅한 밸런스 아이코닉 아이링 가격 미정 **타사키**. 4개의 상징적 밴드를 결합한 콰트로 컬렉션 블랙 에디션 다이아몬드 라지 링 1천만원대 **부쉐**. 벨로 안 굽의 다이아몬드 밴드가 특징하는 피아제 포지션 오픈 벨로 브레이슬릿 7백30만원대 **피아제**. 에디터 **이혜미**

Fashion SUMMER SLING

트렌디하지만
가볍지 않고,
시원하지만
적당히 짙잖기도 한
슬링백.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실크로 감싸고 크리스탈 장식을 매지한 브로슈 비바 에 슬링백 2백20만원 **로저 비비에**. 메시 소재에 스핑크스 자수를 장식한 스카주 슬링백 1백만원대 **미넨로 블라데리**. 옥스퍼드 슈즈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매력적인 시원한 블루 컬러 영스카주 슬링백 70만원대 **마크 제이컵스**. 리드미컬한 물결 모양으로 리본을 장식한 스웨이드 슬링백 68만원대 **말바디**. 테-베어 스타드 장식으로 우트를 다한 숏이카주 슬링백 72만원 **모스카노**. 에디터 **장미은**



Beauty LET IT RAIN
땀과 습기에 강해 번짐 없이 깔끔하게 지속되는 워터프루프 뷰티 제품은 여름 메이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우부터) **샤넬 스틸로 이드 워터프루프 #블랙 우드** 다른 컬러 색조나 마스크라와 레이어링하면 한여름에도 내추럴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이 가능한 딥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 펜슬(0.3g 3만6천원). **랑콤 그랜드이즈 워터프루프** 특허 출원 중인 마스크라 붓과 이를 둘러싼 브러시, 한 번의 터치로 진한 속눈썹을 연출해주는 강렬한 블랙 피그먼트가 특징이다(10g 4만4천원대). **에스티 로더 더블웨어 래디언트 컨실러 #2C 라이트 미디움** 크림 같이 부드러운 포플라가 매끄럽게 발리며 동침, 갈라짐, 까임 없이 다크서클을 커버한다. 피부과·안과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10ml 4만2천원대). **시슬리 히프 롤 스타 워터프루프 시머링 아이라이너 #스피클링 블루** 레진 복합체 덕분에 기루 날림이나 뭉침 없이 완벽하게 유지된다. 시퍼너를 내장했으며, 팬데싱이 단단한 것도 매력적(0.3g 5만5천원). **이워글라스 젤 라이너 #브라운즈** 1.5mm 메카니컬 펜슬을 내장해 극도로 얇고 부드러운 아이라인을 손쉽게 그릴 수 있다. 사용 후 10초 만에 완벽하게 마른다(0.06g 2만4천원). **세르주 루벤 파 콜 라이너** 진하고 선명한 발색으로 또렷한 아이라인을 완성할 수 있으며, 더블 애플리케이션을 내장했다. 소량 사용할 때는 사인형 모양, 부드러운 터치로 원할 때는 둥근 것을 사용한다(4.5g 8만8천원). **이워글라스 베나쉬 파운데이션 스틱 #벨-라이트 뉴트럴** 커버력은 컨실러, 부드러움은 리퀴드 파운데이션, 가벼움은 파우더 수준의 완벽한 스틱이다. 고농축 피그먼트를 함유해 얇게 발라도 피부 결점을 커버할 수 있다. 작은 결점을 가리는 데도 효과적(7.2g 6만원). 에디터 **장미은**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스타들.

Drinks 상큼하거나 강렬하거나, 다채로운 주류의 향연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렇듯다 상큼하거나 강렬한 주류가 유혹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하는 애주가가 많다. 삼페인, 싱글 몰트위스키, 보드카, 맥주 등 올여름에도 다채로운 신제품이 오감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숲에 발베니 디스틸러리 익스피리언스라는 팝업 체험 증류소를 열었던 구린 수제 싱글 몰트위스키 브랜드 발베니(The Balvenie)는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개성 있는 스토리텔링을 곁들인 한정판 '발베니 스토리 컬렉션'을 선보였다. 달콤한 과일 풍미의 발베니 12년 스위트 토스트 오브 아메리칸 오크, 섬세한 피트 향을 품은 '14년 워드 오브 피트', 스파이시한 오크 향을 머금은 '26년 데이 오브 다크 발리' 3종이다.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싱글 몰트위스키 브랜드 글렌모렌지(Glenmorangie)는 빈티지 컬렉션을 내놓았다. 언뜻 보기에도 확연히 다른 두 위스키의 창조적 조합으로 빚은 '그랑 빈티지 몰트 1991'은 고유한 풍미가 인상적인 26년산 한정판 위스키다. 색상과 디자인부터 청량감을 주는 신제품도 눈에 띈다. 삼페인 브랜드 뱀브 클리코의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뱀브 클리코 컬러라미(Veuve Clicquot Colorami)'는 와인 메이커의 블렌딩 노트에 담긴 연필 획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에 보냉 효과를 더한 '뱀브 클리코 펜슬 리미티드 에디션, 아오에 나갈 때 실용적인 '뱀브 클리코 아이스 재킷'을 포함한다. 보드카 브랜드 업솔루트(Absolut)는 달콤한 핑크빛을 녹여낸 '업솔루트 그레이프 프루트'를 선보였다. 천연 핑크 지용의 맛을 담았는데, 살랑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깔끔하면서 부드러운 맥주를 좋아한다면 붉은빛이 감도는 '앵버 라거 레드록(Redrock)'의 진하고 부드러운 맛을 시도해볼 것. 중국 바이주를 좋아한다면 흑룡강성의 송넨 핑에서 재배한 유기농 귀리와 송화강 청장수로 양조한 '갈롱'이라는 신규 브랜드에 술거칠지 모르겠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프리미엄 바이주로, 인공지능 기술과 뇌과학 기법을 적용해 우리 입맛에 잘 맞는다.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Korean Eye 2020' 프로젝트 시동 걸다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이머징 아티스트'를 조명하는 '코리안 아이 프로젝트', 10여 년 전 런던의 사치 갤러리에서 진행된 전시를 기념한 프로젝트로 공식 명칭은 '코리안 아이 2020: 한국 동시대 미술(Korean Eye 2020: Contemporary Korean Art)'이다. 이에 따라 회화, 사진, 조각, 비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국 작가 30명을 선별해 이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를 개최한다. 내년 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시작으로 런던 사치 갤러리를 거쳐(내년 여름), 내년 가을에는 서울에서 전시가 열린다. 세계적 출판사 스킨(Skira)에서 한국 작가 75명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화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코리안 아이는 아시아의 신진 작가 발굴하고 후원하기 위해 설립한 문화 예술 단체 PCA가 주도한 글로벌 아이(Global Ey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창업자는 미술출판사 데이비드·세라넬라 시클라티리(David and Serenella Cicilira) 부부. 이번 프로젝트를 이끄는 큐레이팅 팀은 PCA 최고경영자(CEO) 세라넬라 시클라티리와 사치 갤러리 총괄 디렉터 필리 애덤스(Philly Adams), 에르미타주 미술관의 아시아 부문 담당 디렉터 디미트리 오제코프(Dimitri Ozerkov)다. 오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런던 사치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스타트 아트 페어(START Art Fair)에서 코리안 아이 '티저' 전시를 선보인다. 코리안 아이 2020 프로젝트는 KEB하나은행이 후원한다.



MONTBLANC

Reconnect.

몽블랑 스타워커

montblanc.com

프레임과 템플을 잇는 카탈란 알파벳 B 로고 장식이 유니크한 신들라스 30만 원대 바버리 by 룩스타카.

정교한 기묘세 디자인을 장식한 옐로 골드 스워드 양털브라 워치 9백90만원 반들리프 아펠.

가벼운 편백나무 레이어를 반박시 스와 로라스 228만 원 시스폴브스카.

텍스타가 다른 두 가지 가죽을 교차한 장중한 인들라이토. 검은색이 매력적인 이쁘고 75 백 원대 바버리 by 룩스타카.

이퍼 부레에 FF 로고를 새겨서 1백만 원대.

블랙 & 베이지 컬러의 사형이벤트에 맞는 가을 사랑한 GG 가죽 슬링백 9백20만원 구제.

SERPENTE 시리즈 아사르테 아펠, 실링 아펠, 아펠리 아펠리

금장 로고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블랙 카프스킨 벨트 가격 미정 샤넬.

블루 & 그로그랑 군용을 다룬 브라운 벨트 한 가격 미정 구제.

향긋한 가죽 조를 뛰어 우븐 패턴을 강조한 레더 벨트 90만 원대 에트네비탈도 재나.

막대 사탕에서 영감을 얻어 상층계 기법으로 구현한 다이얼이 돋보이는 RM 37-01 슈세드 워치 가격 미정 리차드 밀.

과감한 로고와 컬러 플레이가 돋보이는 백팩 2백73만원 발렌타노 가부바니.

과파적인 M 코트와 컬러 스트라이프로 장식한 울트 67만 원대 모나나.

컬러 블록 집업 니트 카디건 1백102만원 팬디 맨.

구찌 1577-1921
몽블랑 1670-2551
무이 02-3446-8074
룩스타카 02-501-4436
리차드 밀 02-512-1311
모나나 02-2254-4150
보타가 배네타 02-3438-7682
샤넬 080-332-2700
스오로브스키 1522-9065
지형시 02-546-2790
팬디/팬디 맨 02-2066-9023
반들리프 아펠 00798-882-16123
발렌타노 가부바니 02-2015-4663
에르메네제갈도 재나 02-518-0285

Selection

두 가지 이상의 컬러와 소재를 믹스 매치한 2019 프리플 시즌 신상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SWAROVS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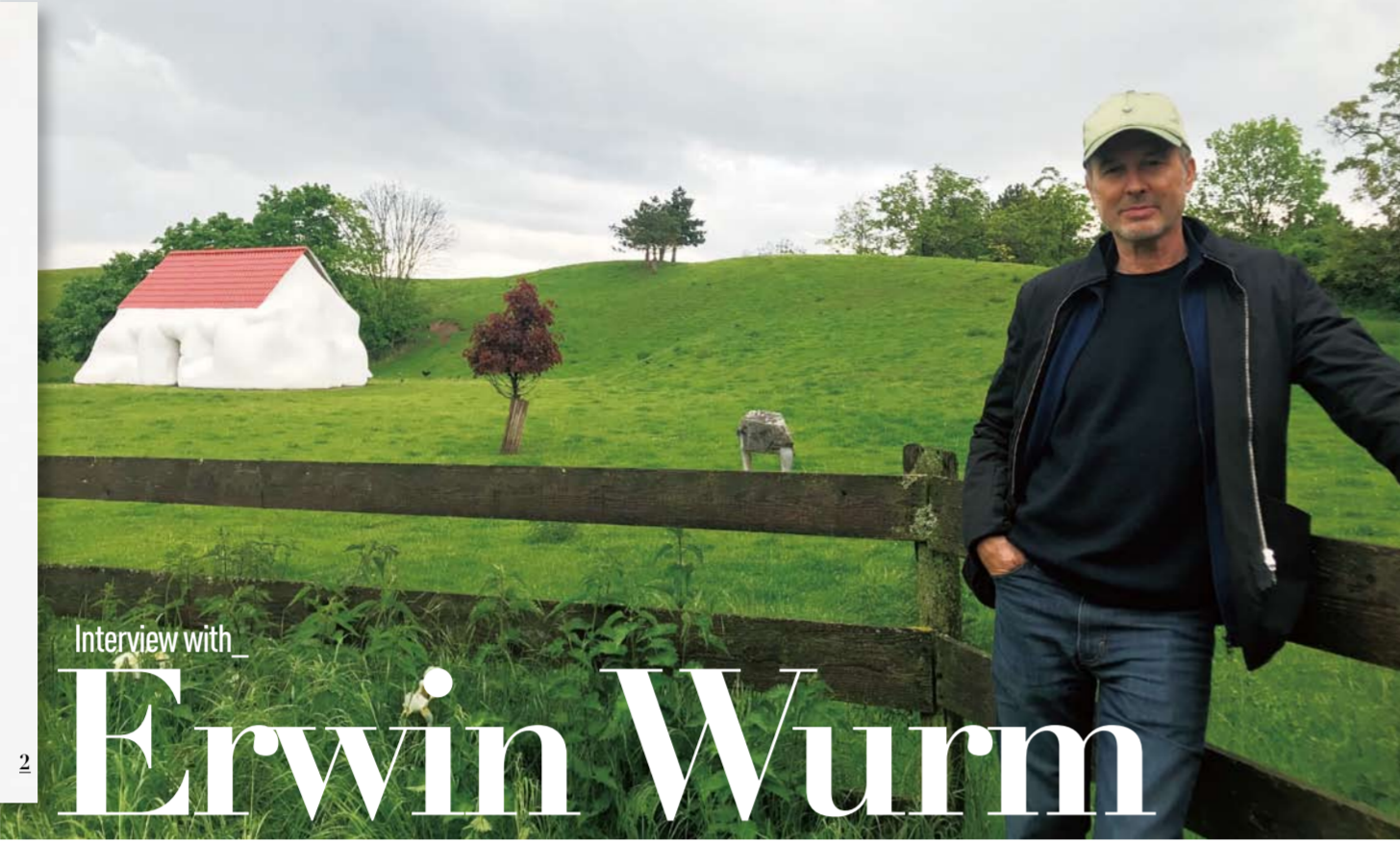
#SparkDelight

Shop the Swarovski Sparkling Dance Collection

1



2



Interview with

Erwin Wurm

에르빈 부름(Erwin Wurm)이라는 이름은 현대미술을 애정하거나 관심을 지닌 어떤 이들에게는 꽤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2017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오스트리아 국가관의 대표 작가를 맡기도 했던 그의 개인전이 지난해 봄부터 5개월 가까이 서울 이태원에 자리한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열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아트 페어 아트 바젤(Art Basel) 홍콩 기간에도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메이저 화랑인 리먼 머핀(Lehmann Maupin) 갤러리가 그의 개인전을 진행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말 아트부산 2019에 참가한 독일 쾨니히 갤러리(König Galerie)는 여러 작가를 소개하는 대신 에르빈 부름의 단독 전시를 선보였다. 작가 개인이 전시 콘텐츠를 들고 '영업하면서 다니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그는 다양한 도시를 섭렵하면서 지구촌을 누비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의 존재감을 부쩍 키워가고 있다.

‘동분서주’하는 작가와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필연적인 인터뷰

등에 반짝, 서에 반짝 하는 에르빈 부름을 남프랑스의 항구도시에서 마주했다. 대대적인 전시를 앞두고 마르세유의 한 미술관에 들른 그를 아주 우연히 맞닥뜨린 것. 예기치 않은 만남이었고, 당시에는 일정보다 뒤로 있었지만,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 될 운명은 아니었던가 보다. 마침 필자는 일주일 정도 뒤에 에르빈 부름의 주무대인 비엔나로 향할 예정이었고, 그 도 긴 출장이나 여행을 떠나지 않는 주간이었던 것이다. 짧은 조우였지만 그는 예외 바르케 비엔나에 오면 한번 자신의 스튜디오에 놀러 오라고 초대했고, 흥미로운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의 작업실을 구경할 기회를 놓칠 이유는 없었다. 에르빈 부름의 작업은 단지 '이름값' 때문이 아니라 절로 관심의 촉수를 뻗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세로로 길고 좁다랗게 늘려놓은 듯한 집이라든가 몽실몽실한 느낌의 뚱뚱한 처라든가, 가늘고 뻐뻐 마른 오이나 젓가락처럼 늘려놓은 파격적인 비율의 인체 조각 등 그의 작품들을 보면 시각적으로는 언뜻 경쾌하고 재기 발랄하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진중한 질문에서 출발했을 법한 생각의 토대가 궁급해진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만나게 된 에르빈 부름은 꽤 진지한 대화 상대였다. 이 점은 놀랍지 않았지만, 그의 작업실은 예상을 빗나갔다. 사실 그의 작업실은 비엔나에 있지 않았고, '작업실'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엄청났다. 비엔나에도 거처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주로 차로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되는 외곽에 있는 림베르크(Limberg)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다. 비엔나 자체도 '녹색 도시'지만, 림베르크는 그야말로 온통 초록색으로 뒤덮인 한적한 전원 마을.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 속에 에르빈 부름의 '스튜디오'는 아주 넓고, 존재감 있게 자리 잡고 있었다. 커다란 농장이라고 해도 될 만한 북가적인 부지에 여러 채의 건물이 흩어져 있고, 그의 가족이 비엔나를 오가면서 거주한다는 운지 있는 고택도 자리하고 있다. 어린 딸을 제외한 부인과 2명의 아들은 공식적으로 그의 일을 돕고 있기도 했다. "(이탈리아인들처럼) 가족 기업을 꾸리고 있는지 몰랐다"고 인사를 건네자 그는 "오스트리아인 피아의 아지트에 온 걸 환영한다"면서 웃었다.

조각의 개념에 도전장을 던진다

스스로를 '조각가'로 규정하는 에르빈 부름의 정체성은 확고하다. 설치, 드로잉, 영상 등 대



3



4

5



7



8



9

1 오스트리아의 현대미술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에르빈 부름(Erwin Wurm)의 스튜디오와 작업이 들어선 목가적인 풍경이 아름다운 림베르크(Limberg). 작가의 뒤쪽에 보이는 집은 'Fat Series' 중 하나인 'Fat House'라는 작품이다. Photo by SY Ko 2 에르빈 부름의 자화상 '18 / Me Later'(2017~2018). Crayons on paper, 29.7x21cm. 이미지 제공: Studio Erwin Wurm 3, 4 마르세유의 야리 미술관에서 작품이 선보이는 대형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2019년 5월 17일~9월 15일). 'Narrow House'와 'Far'가 전시된 모습. Photo: ©David Giancaterina 5 자느뵈르이트 바젤 홍콩 2019 기간에 열린 에르빈 부름 개인전(3월 25일~5월 11일) 설치 전경. 6 림베르크에 있는 에르빈 부름의 자택 내부에 미국의 거장 알렉스 카츠(Alex Katz)의 작품이 걸려 있다. 그는 고미술부터 근현대 미술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미술품 컬렉터이기도 하다. Photo by SY Ko 7 에르빈 부름의 람베르크 스튜디오 풍경. 곳곳에 작가의 작품이 자리잡아 어우러져 있다. 8 마르세유 개인전에 선보이고 있는 'Untitled'(2019). Plywood, metal, textile, wood, 140x42x32cm. 9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오스트리아 국가관 대표 작가였던 에르빈 부름이 당시 선보였던 작품 중 하나. 'Ship of Fools'(2017). 이미지 제공: 에르빈 부름 스튜디오(Studio Erwin Wurm). 10 지난해 서울 이태원의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거의 5개월에 걸쳐(2018년 4월 19일~9월 9일) 열린 에르빈 부름의 개인전 (Erwin Wurm: One Minute Forever)의 전시 풍경. 이미지 제공: 현대카드



6

다수의 현대미술가들처럼 그 역시 다양한 매체(medium)를 넘나들지만 그는 "나는 그저 조각가"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가 빛어내는 오브제, 사진, 비디오, 심지어 퍼포먼스까지도 '창조물'은 다 조각으로 간주한다. 조각의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그 자신을 포함해 주변의 '살아 있는' 사람들, 사물들, 거주하는 등 무엇이든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drinking sculpture', 'outdoor sculpture', 'performative sculpture' 등의 독특한 분류법을 따른다. 미술사를 전공하면서 이론을 공부하다가 2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되어서야 아티스트의 길을 선택한 된 그는 '조각이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역사 속에서 '전형성'을 지닌 조각이 21세기에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찾는 게 그에게는 예술가의 당연한 '동시대적인 책무'로 여겨졌던 것이다. 사물을 마구잡이로 비틀거나 인체를 우스꽝스럽게 변형한 '왜곡된 모습'의 기저에는 우리가 스스로 던져온 했던, 혹은 던질 수 있는 질문도 깔려 있는 듯하다. "나는 더 말라도, 뚱뚱해져도, 혹은 뼈를 깎아서 피가 스며들어서도 여전히 나인가?" 하는. 이처럼 도전적인, 아니 어찌 보면 누구나 품고 있을 만한 질문을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느끼고 고민해볼 수도 있다. 1990년대 후반 에르빈 부름에게 처음 유명세를 가져다준 '1분 조각(one minute sculpture)', 혹은 '60초 조각'이 바로 그러한 인식의 지렛대가 아닐까 싶다. '60초 조각!' 글자 그대로 60초, 1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 있어야 한다. '살아 있는 조각'으로서, 지난해 현대카드 스토리지 개인전에서 관람객은 실제로 60초 조각의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친절하게 지시 사항이 안내되어 있다. "햇바닥을 내밀어라", "공 위에 누워 몸의 어느 부분도 땅에 닿지 않도록 하라", "마커 펜을 신발 위에 올리고 1분간 유지하면서 테카트를 생각하라" 등의 지침이다. 이처럼 작가의 개입을 받아들이면서 관객들은 기꺼이 '침묵적인' 태도를 취한다. 몸을 의자나 테이블 밑으로 구겨 넣기도 하고, 허수아비 같은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신발을 벗고 누워 있기도 하며 즐기는 이들이 많다. '신체 능력만 있다면 물구나무를 선다고 해도 상관없다. 이처럼 단 1분 동안만 '실재하는 조각을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다. 영구적인 것만이 조각인가? 고정된 형태로 남겨질 수 없다면 조각이 아닌가? 순간은 영원할 수 있는가?' 이는 결국 '인간'과 '존재'에 대한 성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

흥미롭게도 그의 '개념' 조각 시리즈가 더 큰 유명세를 타게 된 배경에는 독일이 자랑하는 슈퍼 모델 클라우디아 슈퍼, 미국 록 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 같은 유명인과의 '협업'도 있었다. 슈퍼는 모델로서가 아니라 어느 관객처럼 1분 조각 프로젝트의 '인체 조각'으로 참여하면서, 그 이미지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에르빈 부름의 설명인즉, 사실 그는 패션 잡지 <보그>의 협업 제안으로 공리를 하다가 반동담처럼 갤러리 관계자한테 이 프로젝트에 가담했으면 하는 '후보'를 얘기하면서 그녀를 언급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사실 별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클라우디아 슈퍼는 그의 작품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흔쾌히 참여했다고. 레드 핫 칠리 페퍼스와의 인연은 에르빈 부름의 조각 콘셉트가 그들의 뮤직비디오에 반영된 경우다. 'Can't Stop'이라는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양동이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마커 펜을 쿿구멍에 넣는 등의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취하는 멤버들을 볼 수 있다. 에르빈 부름이라는 이름을 더 널리 알리게 된 계기로 작용한 건 당연지사.

이렇듯 작품을 '대중적으로' 홍보할 줄 아는 그는 여러모로 영리한 작가다. 하지만 자신의 토대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아니, 노력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회가 있다면 지구촌 어디든 열심히 다닌다. 작가들 중에는 다른 문화 예술 콘텐츠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에르빈 부름은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문화적 체험을 좋아하며, 예술품과 오브제를 사들이는 컬렉터이기도 하다. 초심을 잃고 싶지 않은 그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순간은 블룸버스터 전시가 아니다. "브레멘에서 개최된 첫 번째 전시였어요. 열흘 남짓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모든 걸 다 해냈어요. 사실 (고민을 했어도) 구체적인 '뭔가가' 없이 일단 갔던 거죠. 아주 절실했어요." 전시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인 호평이었고, 그는 이때 느낀 성취감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겉모습만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는 이미 60대 중반이다. 아마도 간절함을 잊지 않으려 애쓰면서 부단히 고민하고 흡수해나가는 자세가 그를 '살아 있는' 작가로 유지시키는 게 아닐까는지. 글 **고성원**

어유로운 핏의 실크 · 울 혼방
화이트 재킷 4백90만원,
오이드 팬츠 1백90만원,
양가죽 에스파드리유 슬리퍼
슈즈 80만원 모두 **로로피아나**,
오른손에 착용한 비트윈 더
핑거링 가격 미정 **에르메스**.

Summer Whisper

어느 고요한 해변에서 만난 여름날의 풍경, 그리고 리조트 룩.
photographed by park jong ha



블랙 스팅글 장식 점프수트 가격 미정 **사넬**.



스트레치 울 보디수트 1백10만원, 원형 팬던트 장식의 리본드 네크리스 2백37만원, 왼손 약자에 착용한 링 95만원, 파우치 스타일의 카프 스킨 오버사이즈 클러치 2백93만원, 니파 가죽앵글 스트랩 샌들 90만5천원 모두 **보태가 베네타**, 레이스업 디테일의 레드 뷔스티에 가격 미정 **미우미우**, 오른손 검지에 착용한 메탈 소재 메시 링 76만원 **구찌**.



컷아웃 디테일이 멋스러운 블랙 원피스 스웬수트, 빅 포켓 디테일의 화이트 코튼 셔츠, 블랙 카프 스킨 벨트, 레이스업 부츠 모양의 투박한 샌들, 왼쪽 손목에 착용한 사각 형태 실버 앵글, 오른쪽 손목에 착용한 실버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화이트 울타네 이브닝드레스 2백49만원, 솔처럼 연출 가능한 컬러 블록 실크 패딩 반디나 91만원, 볼드한 인조 펠을 장식한 필라름 드롭 이어링 65만원 모두 **빅버러**.



빅버러의 스트라이프
카드건 3백50만원 구찌, 레드 컬러
비키니 톱, 화이트 코튼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원손
감자에 긴 굵드 마감 처리한 스텔링
살버링 95만원 **보테가 보테가**.

소트 슬리브 슬림 핏 핑크 컬러
 셔츠 44만원, 양면에 스트라이프를
 더한 니파 가죽 와이드 팬츠
 1백30만5천원, 화이트 스트랩
 샌들 1백5만원 모두 **보스 우먼**,
 상단코르 모티브의 싱글 실버 이어링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원 솔더 라이트 비스코스 저지 티셔츠 44만원, 랩 스타일의 미디스커트 74만원 모두 **만스미라**, 입체적 구형 렌던트로 장식한 체인 네크리스 3백63만원 **보태가 베네다**, 블랙 스웨이드 소재 글래디에이터 샌들 1백73만원 **롱삼**, GG 미용 리피아 스몰 솔더백 3백10만원 **구찌**.

헤어 **조미연**
 메이크업 **김미정**
 모델 **아메리카(America)**
 어시스턴트 **삼현**
 에디터 **이혜미**

구찌 1577-1921
 로코파이나 02-546-0615
 롱삼 02-2143-7136
 만스미라 02-3467-8326
 마우마우 02-541-7443
 버버리 080-700-8800
 보스 우먼 02-515-4088
 보태가 베네다 02-3438-7692
 시셀 080-200-2700
 에르메스 02-542-6622

editor's Pick

휴가를 앞둔 7월, 촉촉한 보습부터 서머 메이크업까지 책임질 신상품 뷰티 아이템 추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클레어오트 보메 레디언트 라이드 루즈 매트 #102 타치 오브 벨로셀** 매트 특유의 뽀뽀하고 몽창는 느낌이 없다. 이트간 오일을 함유한 생크림 같은 텍스처가 부드럽고 촉촉해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베이킹 작업할 때 사용하는 필러트 나이트에서 영감을 받은 애플리케이션의 향피도 인상적. 8ml 6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장미윤*

클라리스 마이 클라리스 클리어-아웃 탠트 인퍼렉션스 새롭게 탄생하는 비건 라인 마이 클라리스는 천연 식물 성분을 원료로 화학 성분, 동물성 성분을 배제하고 일체의 동물성 성분 없이 개발한 착한 화장품이다. 총 9가지 제품 중 피부 트러블 케어에 초점을 맞춘 스킨 크림을 스킨케어 루틴에 추가하면 더 나은 피부 컨디션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피부에 스며드는 텍스처가 가볍고 신맛에 유대하며 더부러 좋다. 15ml 2만5천원. 문의 080-542-9052. *by 에디터 이혜미*

룩시엔 시트라스 바베나 리프라이시 워터 젤 수분이 가득한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하게 느껴지며, 무엇보다 끈적임이 없어 여름에 적합한 제품.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바를 때 시원해 서아들이 좋아한다. 150ml 4만원. 문의 02-2054-0500. *by 에디터 장미윤*

DNC 파우더미지 크리스탈 스킨 마스크 보석 성분을 담은 리얼 보석 팩.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산호, 연옥 등 각기 다른 4가지 보석 에센스를 함유했다. 작은 에센스 한 통 분량을 골백 적인 얇은 시트가 피부를 완벽하게 감싸 들뜸 없이 케어한다. 통기성도 좋아 아침에 사용하기 좋다. 시트 1개 30g 8개 기준 3만2천원. 문의 080-344-5575. *by 에디터 장미윤*

쇼파드 해피 스파드 비가라디아 오드 퍼플 하이 주얼리 스파드의 컬러 스톤 주얼리를 연상시키는 압록달콤한 투명 보틀이 사랑스러운 향수. 프랑스어로 비가라디아(bigaradier)라고 하는 비터오렌지 나무의 꽃과 가지, 열매 추출물이 핵심 성분으로, 달콤한 향이 특징이다. 여기에 파출리, 라디넘 등을 가미해 세련된 무드를 느낄 수 있다. 100ml 17만5천원. 문의 080-990-8989. *by 에디터 이혜미*

나스 네츄럴 레디언트 블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샤를 피부 톤을 고르고 지속력이 뛰어난 메이크업 아이템에게 사랑받는 나스의 레디언트 파운데이션을 쿠션 타입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피부에 가볍게 밀착하는 중간 정도의 커버력을 지니 분량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보정할 수 있다. 한국의 소비자들을 위해 출현 #샤를 컬러는 핑크빛이 감도는 밝은 톤으로 얼굴을 화사해 보이게 해 더욱 만족스럽다. 12g 6만9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이혜미*

반 데르 피케 칼렌듈라 라파리 크림 먹을 수 있는 천연 피부에 바르는 거친 철학을 깨워 아이는 1백70년 역사의 네덜란드 오가닉 브랜드 반 데르 피케. 그중 피부 친성·수딩 효과가 뛰어난 이 크림은 손가락으로 짝오면 부드럽지만 바르면 꾸덕해지는 텍스처가 특징이다. 자외선, 일상의 스트레스, 오염된 공기 등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각종 피부 트러블을 빠르게 개선한다. 110ml 4만2천원. 문의 031-716-4866. *by 에디터 장미윤*

프래쉬 로즈 딥 하이드레이션 슬리핑 마스크 아침에 유난히 푸석푸석한 피부 때문에 고민이라면 중 눈에 된 슬리핑 마스크. 양배추 줄기의 젤 에센스, 실카린 워터 크림 2가지 텍스처를 함께 담아 레이어링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2 스텝에 맞춰 마스크를 듬뿍 바르고 일어난 다음 날, 수분감 넘치는 부드럽고 탭 탭글글한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70ml 6만2천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이혜미*

결함 테라코타 칸투어 앤 글로우 팔레트 얼굴의 윤곽을 잡아주는 매트 칸투어, 세이팅 효과와 함께 광택을 더하는 브론저 세이드, 단독 또는 섞어 사용해도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꾸주는 블러시 & 하이라이터를 포함한 리미티드 에디션 팔레트. 얼굴이 유난히 흰 편인 에디터가 사용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입자가 곱고 컬러감이 자연스럽다. 여름 시즌에 어울리는 건강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연출하기에 제격 6.5g×3 9만4천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이혜미*

볼리 1803 트루 아이오나이드 마세탈 토너 순에 들어 사용하는 대신 화장솜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듯 비니 확실히 피부결이 정돈되고 생기가 돋는다. 다음 단계 제품 사용을 위한 피부 초소를 다자리에 다량 내워 없이 완벽하다. 마스트 광택에 닿아 수시로 사용해도 좋다. 200ml 5만9천원. 문의 02-511-3439. *by 에디터 장미윤*

리쉬레트 오가리 컬러 프로텍션 칸디사서 잿은 염색과 펌으로 같이 염기가 나 갈라진 모발에 효과적인 제품. 프랑스 남서부에서 재배한 콩 추출물을 함유해 단백질 케어를 돕고 헤어 컬을 오래도록 유지해준다. 한 달만 사용하면 엉망이 일하고 모발에 윤기가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50ml 3만2천원. 문의 1899-4802. *by 에디터 이혜미*

데코르테 리스탈 볼륨 제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볼륨·결정 효과가 뛰어난 마스크라. 길이가 다른 눈의 모양에 맞춰 납땀한 S자 곡선을 그리는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눈썹 뿌리 부분부터 한 올 한 올 꼼꼼히 바를 수 있다. 알고 힘 있는 속눈썹이 뭉침 없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 9.1g 4만2천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이혜미*

구미 갈티 부르 올트 구짜가 만든 첫 번째 향수 중 하나로 독 쓰는 핑크 페퍼로 시작해 그린, 우디 같은 자연 향으로 마무리한다. 전체적으로 시원하지만 가볍지만은 않은 은은하고 남성적인 사파우드 향이 매력적. 지금부터 가을까지 사용하기 좋은 듯하다. 90ml 1만2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장미윤*



라빈 재킷 3만9300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핑크 컬러 버튼다운 셔츠 15만9천원, 하운즈투스 체크 베스트 45만9천원, 슬림 타이 12만9천원, 스트레이트 핏 와이프 코트 팬츠 17만9천원 모두 **폴로 알프르옌**, 화이트 레이스업 슈즈 75만원 **차차스**, 블랙 사파이어, 브리프케이스 3만2천원 **프라다**.



옐로 컬러 렌즈 선글라스 20만원대 **레이비 by 록스타카**, 싱글브레스트 코트 재킷 3만4천원 **에르메스**, 민트 컬러 파케 셔츠 19만7천원 **맨오더본**, 경쾌한 스트라이프 셔츠팬더 22만9천원 **폴로 알프르옌**, 네이비 컬러 코트 팬츠 78만원 **프라다**, 브레이디드 레더 로퍼 65만9천원 **에스.티. 듀폰 슈즈**.

new business Class

시원하고 쾌적한 천연 소재,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가 어우러진 서머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스타일링: 김유영, 이시은, 김이영



마스터드 컬러의 코트 라인 재킷 95만원 **몬테드로 by 솔로웨이**, 이노비 매치한 티셔츠 19만원 **자느비 by 솔로웨이**, 코트와 라인 혼용 화이트 팬츠 43만원 **인코텍스 by 솔로웨이**, 브레이디드 벨트 29만원 **솔로웨이**, 토트백과 백팩, 두 가지로 연출 가능한 **필라레스타™** 홀트 백 2만9200원 **에르메스** **제너**, 태슬 디테일의 스웨이드 로퍼 1만2700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에디터 이혜미

록스타카 02-569-3914
맨오더본 1644-4490
보스 맨 02-515-4088
비이커 02-6905-3380
솔로웨이 02-6905-3569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에르메스 02-518-0285
에르메스 02-542-6622
에스.티. 듀폰 슈즈 02-2106-3596
처치스 02-3479-1140
폴로 알프르옌 02-6905-3505
폴로 알프르옌 02-6004-0220
프라다 02-3218-5331

SHOWROOM

BEAUTY



프라다



실론

프라다 라 페르미 프라다 워터 스텔라쉬 만다린과 베르드 만다린으로 사탕향 선두우드로 미우리되는 시트러스 플로럴 계열의 여성 향수. 마치 열대지방의 정글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그래픽적 플로럴 프린트의 보틀이 감각적이다. 문의 080-363-5454

실론 배우 이엘리아 뮤즈 선정 홀 커어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실론은 최근 떠오른 배우 이엘리아를 뮤즈로 선정했다. 도시적 이미지와 세련된 매력을 지닌 이엘리아와 함께한 브랜드 화보, 영상은 실론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80-246-1234

LIFESTYLE



시몬스 <리얼리티 바이츠> 전시 경기도 이천에 지리한 소셜 스페이스 시몬스 테라스에서 10월 20일까지 <리얼리티 바이츠> 전시가 열린다. 1960~70년대를 풍미한 히피 컬처와 사탕 신을 촬영하는 포토그래퍼 로로이 그레니스, 뮤지션이자 서퍼인 잭 존슨 등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담았다. 2층에서는 전문 큐레이터와 함께 브랜드 뮤지엄 헤리티지 일대를 무료로 경험할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의 031-631-4071

골든듀 배우 한지민 뮤즈 선정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배우 한지민을 뮤즈로 선정하고 새로운 화보를 공개했다. 골든듀의 시그니처 주얼리를 다채롭게 매치한 그녀는 밝고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탁월하게 표현했다. 문의 1588-6576



골든듀



반클리프 아펠

까르띠에 팬더 드 까르띠에 워치 아이코닉 워치 팬더 드 까르띠에 스톤 모델에 이어 미니 모델도 선보인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21x25mm 케이스는 손목이 가는 여성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골드, 스틸, 주얼리 워치 등 6가지 라인업으로 출시하며, 주얼리와 함께 레이어링하면 더욱 멋스럽다. 문의 1566-7277

론진 하이드로 콘퀘스트 수심 300m 방수 기능, 크라운 보호 가드, 이중 접이식 버클 등 다방면 워치의 특징을 집약한 모델로, 스크래치에 강한 세라믹 베젤을 추가했다. 오토매틱 칼리버 L688, 2로 구동하며 슈퍼루미노바 코팅 그레이 핸즈와 샌데이 블루 컬러 다이얼이 조화롭다. 시, 분, 초,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 지름 41mm, 43mm 모델과 41mm 사이즈의 크로노그래프 모델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2-6905-3519

몽블랑 스타 레거시 풀 캘린더 양파 모양 크라운, 몽블랑 엠블럼, 독특한 물결무늬 기요세 다이얼 등 미네르바 매뉴팩처의 역사를 상징하는 디자인 코드를 집약한 시계. 오토매틱 칼리버 MB 29, 12로 구동하며 지름 42mm 스틸 케이스 속 다이얼 가장자리를 둘러싼 31개 숫자를 따라 도는 빨간 초승달 모양 핸즈로 날짜를 읽을 수 있다. 12시 방향에는 월과 요일을 표시하는 창이, 6시 방향에는 문페이즈 창이 위치한다. 문의 1670-4810



론진



몽블랑



바세론 콘스탄틴

JEWEL&WATCH



MCM

MCM 네온 컬러 컬렉션 백팩, 파우치, 쇼퍼 백 등에 비비드한 네온 컬러를 입힌 컬렉션. 플로 홀로그램 라인인 은 기방 전면에 홀로그램 소재를 사용해 화려하며 내부에 작은 네온 비세토스 파우치를 넣어 백인백으로 활용 가능하다. 스테디셀러인 스타크 백팩과 라스타 베네티 케이스에 네온 컬러를 입힌 네온 비세토스 라인 역시 매력적. 크로스 보디 백은 탈착 가능한 스트랩을 더해 2가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79-1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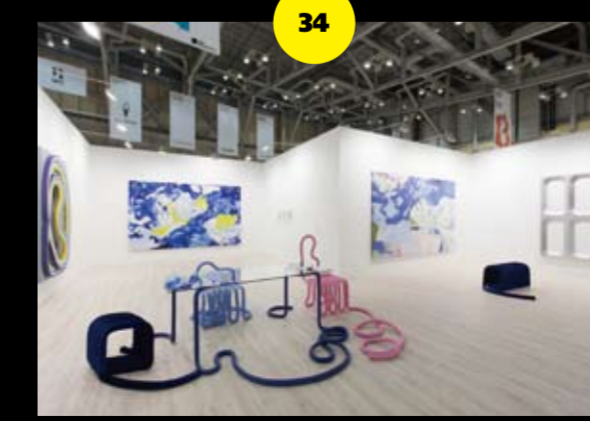
브루셀로 쿠치넬리 슬라이드 슈즈 부드러운 송이치 가죽 스트랩에 모닐리 패턴과 플라워 비즈 장식을 다뤘다. 스웨이드 비덕이 발을 부드럽게 감싸 착화감이 뛰어나며, 미끄럼 방지 고무창을 덧대 안정감을 더해 착용할 수 있다. 슬라이드 슈즈 전채가 뉴트럴 컬러로 데님 팬츠부터 와이드 팬츠까지 다양한 룩에 매치하기 좋다. 문의 3448-2931

브룩스 브라더스 플로럴 프린트 크레이프 셔츠 드레스 가볍고 구김이 적은 크레이프 소재에 경쾌한 플라워 프린트를 더한 셔츠 드레스를 추천한다. 칼라와 포켓 디테일로 클래식한 매력을 강조했으며, 허리 위 스트림으로 다양한 핏 조절이 가능해 활동성과 스타일을 겸비했다. 바캉스 룩부터 캐주얼 룩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다. 문의 02-2052-8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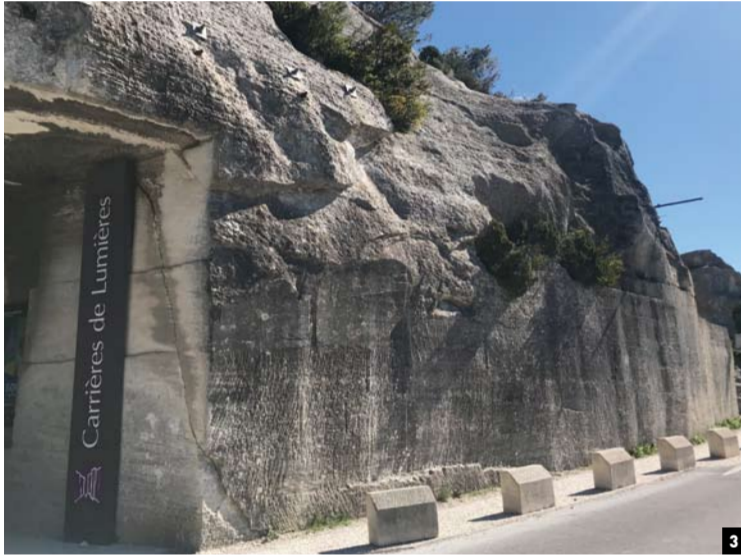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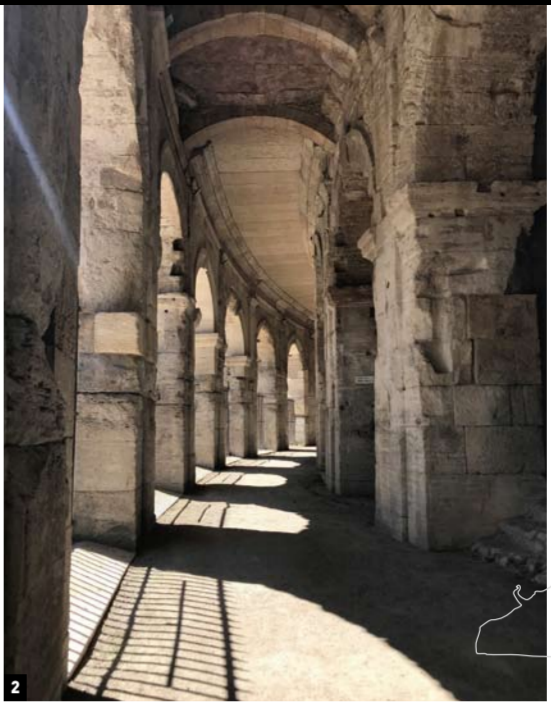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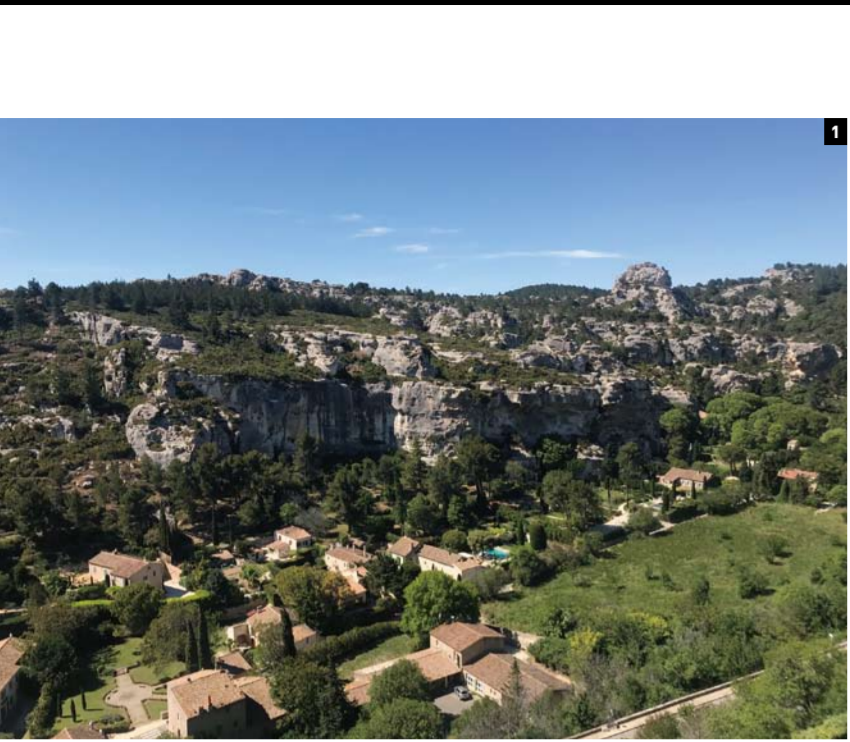
JEWEL&WATCH

FASHION

HOMO VI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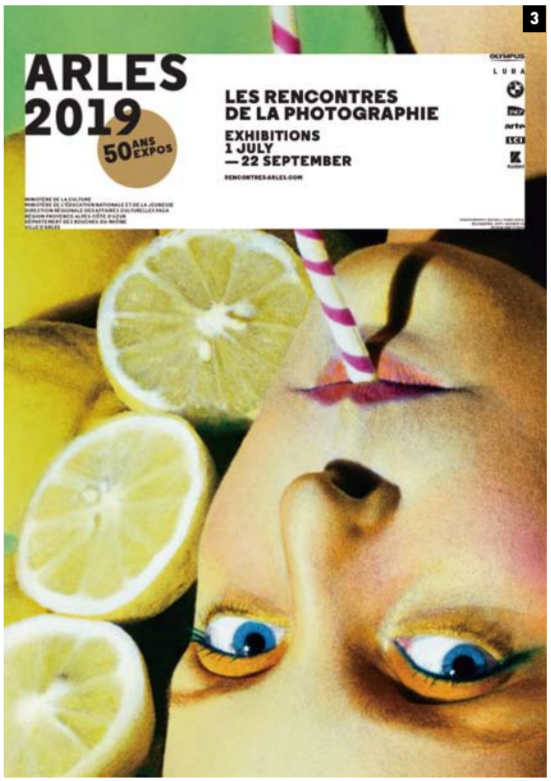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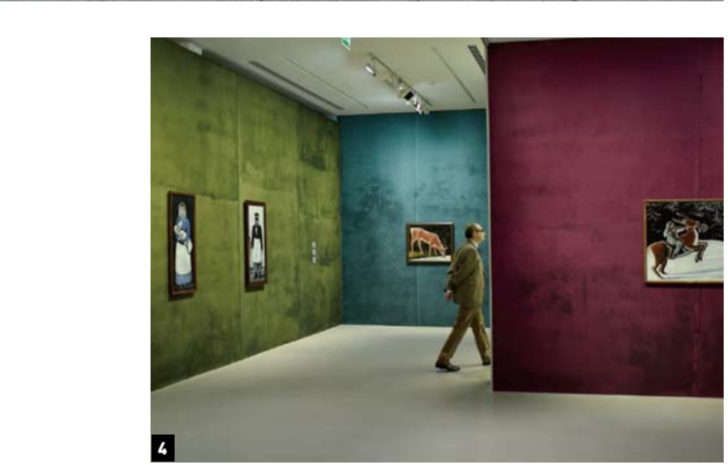
요즘 서점가를 휩쓸고 있는 베스트셀러 <여행의 이유>에서 김영하 작가는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라는 단어를 회자시킨다. 라틴어로 '여행자', '나그네'라는 의미를 지닌 '비아토르'는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 가브리엘 미르셀의 표현. 생존을 위해 이리저리 떠도는 유목민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늘 무언가를 위해, 어디론가를 향해 움직이는 '길 위에 있는' 순례자 같은 존재임을 뜻한다고 한다. 내 길이라는 확신으로 진중하게 움직이는 이도 있고, 뭔가 잡히는 것만 '꿈'에 부풀어 잠잠하는 이도 있고,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떠도는 이도 있을 것이다. 아니, 한 사람의 인생에도 길 위에 있을 때의 모습이 여러 가지일 것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만이 아니라 '체류나' '출장', '여행' 같은 낯선 곳으로의 이동도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른 마음가짐으로 떠날 테고 말이다. 지든 타의든 낯선 곳으로 향하는 여행길에 오르면 생각지 못한 일에 휘말리게 되고, 크든 작든 영향을 받게 된다. 늘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아니, 집중할 수밖에 없다. 김영하 작가의 표현대로 오직 현재만이 중요하고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 어떤 과정이 인생의 행로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Art+Culture' 스페셜호에는 자마다의 상황이나 국적, 연령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길 위에 있고자 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도시들을 담았다. 부디 자연에서나 삶 밖 여행의 묘미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김영현



1,2 석회암 바위 꼭대기에
있어 있는 듯한 듯한 마을
레보드프로방스(Le-Baux-
de-Provence). 이 마을로
올라가면 알피(Alpes)산맥의
수려한 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3 레보드프로방스의 명사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빛의 채석장(Carières de
Lumières)에 있는 카페, 빛의
채석장에서는 배경음악이 흐르는
기운대 바위 위로 투사되는 미디어의
향연도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쇼가 펼쳐진다. 폐쇄된 채석장이
예술 공간으로 거듭난 성공적인 재생
사례다. 4 현대 빛의 채석장에서는
반 고흐 전시가 열리고 있다.



그림 같은 경치가 자라한 알피(Alpes) 산맥 지역에는 하얀 석회암
바위산 꼭대기 위에 걸쳐져 있는 듯한 마을이 있다. 인구 5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 레보드프로방스(Le Baux-de-Provence). 중세에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프로방스의 보(Baux) 가문이 만든 난공불락의 요
새가 우람하게 버티고 있던, 그 자체가 문화유산인 마을이다. '보' 자체가 바
위가 있는이라는 뜻을 지녔고, 마을 입구로 올라가면 놀이동산을 연상시
키는 이뒀한 마을 풍경이 거짓말처럼 펼쳐진다. 모든 걸 축소해놓은 듯한 인
형 마을 같지만 나름 구색을 갖추고 있다. 기념품 가게, 식료품 상점, 크고
작은 집들, 레스토랑, 샵... 이곳에서 고즈넉한 건물에 들어서 있는 이브
브레르 뮤지엄(Musée Yves Brayer) 같은 미술관도 마주할 수 있다는 점
이 여행의 즐거움을 보태준다. 이 미술관에서는 현재 격렬하고 대담한 색채
의 조화로 유명한 화가로 프로방스를 사랑했던 앙리 땡갱(Henri Manguin)
을 내세운 이슈파 전시가 진행 중이다(10월 10일까지). 오르막길을 따라 더 깊
이 들어가면 생애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아를'이라고 하면 대개 반사적으로 '고흐'를 떠올릴 것이다. 사실 빈센트
반 고흐는 아를에서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생테미 드 프로방스
에 바로 앞서 15개월간 머물렀다. 하지만 동료 화가 폴 고갱과의 에피소드
가 워낙 잘 알려진 데다, 무엇보다 그가 간절히 원했던 따뜻한 햇살과 풍
경의 짙은 색깔에 고무받아 2백 점이 넘는 회화를 남겼기에 아를과 고흐는
한 쌍의 단어처럼 붙어 다닌다. '해바라기(Sunflower)', 'Life-Vase with Fifteen
Sunflowers', '밤의 카페 테라스(Café Terrace at Night)', '론강에서
의 별이 빛나는 밤(The Starry Night over the Rhône)', '노란 집(The
Yellow House)' 등 당당 따르오는 제목만 나열해도 지금은 기차를 매기
힘든 명작의 향연이다. 막연히 고흐만을 생각하고 아를을 찾는 경우라면 다
른 면모에 놀라게 된다. 고대 로마 유적이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고, 투우
경기까지 열리는 묘한 앙상블을 목도하게 되기 때문이다(고흐는 로마 유적
같은 데는 영 관심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느린 속도에 익숙한 아를
로서는 꽤 격렬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1 프로방스의 소도시에서는 드물게 고흐의 오리진지 작품을 심심 접할 수 있는 빈센트 반 고흐 재단 미술관
(Fondation Vincent van Gogh Arles). Photo by Hervé-Hoëlle. 이미지 제공: 빈센트 반 고흐 재단 미술
관 2 아를은 투우사가 등장하는 원형경기장 등 로마 유적이 도심 곳곳에도 스며들어 있는 도시다. Photo by
SY Ko 3 아를의 사진 축제는 갈수록 각광되면서 글로벌 축제가 되어가고 있다. 올해는 개최 50주년의 해라
더욱 뜻 깊다. 4 빈센트 반 고흐 재단 미술관에서는 그루자리의 화가 니코 프로스만(Nico Prosmann)과 고흐
를 나란히 조망하는 기획전 'Wanderer between Worlds'의 (Vincent van Gogh: Speed & Aplomb)를 선보이고 있다(오는 10월 20일까지). 동시대성을 살렸던 두 화가는 작품 스타일도 다르
고 서로 만난 적도 없지만 창조적 영혼을 고독하게 불태웠고 사후에 주목받은, 다른 듯 닮은꼴이다. Photo by
Hervé-Hoëlle. 5 최근 수년 새 아를에 일고 있는 변화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내셔널 앙굴렐 예정인 루
마 재단(LUMA Foundation Arles). 프랑크 게리가 많은 프로젝트로 월드 칭으로 쓰인 부채 전시 공간과
사진 학교, 공연 등이 들어선다. Photo by Hervé-Hoëlle 6 아를의 교외에 있는 중세 건축물인 몽마주르
(Montmajour) 수도원. 고흐가 즐겨 찾던 장소로 '해바라기의 일몰'이란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 Lionel-Roux

동시대의 속도와 이미지에 발맞추는 도시 풍경
생테미와 미친기자로 아를에서도 고흐 따라잡기는 진부하게 느껴지더라도
가부하기 힘들다. 그가 살던 노란 집(아를의 포름 광장의 카페)에는 실제로
이 카페의 손님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 치료
받았던 병원 등, 그런데 장작 아를에서 고흐의 '진짜' 작품을 마주치기는 힘
들다. 이는 프로방스의 다른 도시나 그가 사랑한 파리 근교의 오베르쉬르우
아즈도 마찬가지다. 생전에 '아를의 붉은 포도밭'이라는 한 점의 작품만을 팔
았던 고흐의 빈번한 커리어를 생각하면 참 '못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세계
유수 미술관들만이 소장하고 있는 그의 작품을 구하러 한 그릴로 '하늘의
별 따기'다. 하지만 2015년 스위스 재야 그룹의 상속자로 아를 근처에서 어
린 시절을 보낸 마야 호프만(Maja Hoffmann)이 부친에게서 비통을 넘겨받
아 반 고흐 재단을 맡으면서 미술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대중이 고흐
를 볼 접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자리 잡게 됐다. 그 이전에도 고흐의 드로잉
전시마다가 고흐에 한정하는 현대미술 전시가 열리기도 했지만, 언제나 그
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영구적인 장소는 없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마법 같은 체험을 선사하는 '빛의 채석장'
많은 이들이 레보드프로방스를 찾은 이유는 단지 역사와 풍경 때문만이
아니다. 매력적인 곳이 매우 많은 프로방스에서도 아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
게 하는 주된 동인은 따로 있는데, 바로 폐쇄된 채석장의 커다란 화합을 캔
버스 삼아 환상적인 멀티미디어 쇼가 펼쳐지는 '빛의 채석장(Carières de
Lumières)'이다. 전시의 결에 맞는 음악을 배경으로 7000㎡ 면적의 거대
한 채석장 벽과 천장, 바닥을 가리지 않고 미디어가 투사되는데, 정면이 계
속 바뀌면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미디어 쇼는 몰입 체험의 장수
를 맞보게 해준다. 현재 진행 중인 전시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Van
Gogh Starry Night),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아이리스' 등 그의 주
요 명작들이 배경음악 속에서 춤추면서 45분 길이의 쇼가 이어진다. 짧지 않
은 시간이지만 마일스 데이비스, 비발디, 스메티나 등 변화무쌍한 음악의 힘
으로 감동의 끈을 놓지 않게 한다. 고흐가 동경하던 '일본'이라는 주제로 역은
단편 영상 쇼도 볼 수 있다(두 전시 모두 연말까지).

고흐, 클립트, 인상파...
대중적인 콘텐츠를 활용한 혁신
빛의 채석장은 7년 전인 2012년 프랑스 문화 예술 기업 컬처스페이스
(Culturespaces)의 주도로 꾸러졌다. 원래도 시창각 쇼가 가능한 무대이기
는 했지만, 이 회사는 3D 음향 등에서 차원이 다른 이미엑스(AMIX) 기술
을 도입해 사길, 클립트, 르네상스 거장 등의 전사를 열면서 인기몰이를 한
것(자본해 한 해 방문객의 6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자본해에는 파
리에도 빛의 아틀리에(Atelier des Lumières)라는 공간을 열었는데, 몇 주
앞서 예연해할 할 정도로 인기가 몰린다. 마침 제주도 서귀포에서 똑같은 물
입형 전사를 만들 수 있다. 자본해 말 한 컬처스페이스와 협업해 빛의 병
커리는 전사장을 마련했고, 개관전으로 구스타프 클립트 서거 1백 주년을 기
념해 (빛의 병커: 클립트) 전사를 택했다(10월 27일까지).

보마니에르(Baumanière), 오감을 충족시키는 파라다이스

레보드프로방스의 또 다른 명물로는 물레 & 사토(Relais & Châteaux, 역사와 전통을 지닌 최고의 호텔과 명성 높은 요리사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연합) 호텔 보마니에르
(Baumanière)가 꼽힌다. '빛의 채석장'에서도 가까운 이 호텔은 병풍처럼 둘러싼 석회암 바위산을 올라볼 수 있는 50여미터가 넘는 땅에 흠어진 다섯 채의 전통과 낭만이
기운 건물과 짙은 녹음을 자랑하는 정갈한 정원과 연못, 수영장, 최상급 스파 시설은 물론이고 미술관 2스타를 뺀다는 오트(haut) 라진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그런 이유로 미려
한 자연 경관이 선사하는 힐링과 미식의 묘미를 동시에 만끽하려 찾는 이들이 많다. 1945년 창업자인 레이몽 튀일리(Raymond Thuiller)가 프로방스에 애도돼 17세기 농가를 사
면서 시작한 보마니에르의 그의 외손자로 스테페르인 장안드 샤리올(Jean-André Charol)가 노의장을 과시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다(샤리올의 부인, 딸들도 마케트, 디자인
등으로 강경에 참여하는 등 가족 7인의 꼴을 갖추고 있다). 역사가 깊고 화려한 만큼 피카소, 고흐 등의 예술인과 정치인들의 흔적이 호텔 곳곳에 흩어져 있다.

주소 D27, Mas de Baumanière, 13520 Les Baux-de-Provence **사이트** www.baumaniere.com



서로 다른 매력, 그랑 오텔 노르 파누 vs 리틀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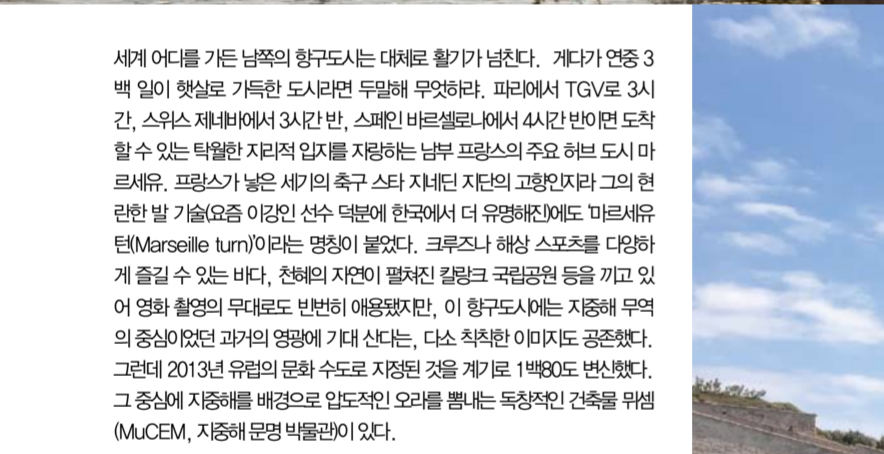
요즘 아를에는 2~3년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상당히 호화로운 도시의 풍경을 새롭게 수놓는 요소가 많다. 그중 독특한
아를다운 개성(를 따지지만 부티크 호텔 리틀리안(L'Artisan)은 단연 가장 '핫하게 화자되는 이름이다. 이 역시 15년기
차이를 개조했지만, 쿠바계 아티스트 호르헤 파르도(Jorge Pardo)의 손길 아래 시간적 활용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감각적인 색의 조합이 인상적인 모자이크 플로어와 조명, 아늑적인 미묘를 지닌다는 대체로 맞춤형 가구와 소
품으로 둘러싸인 내부, 역시 범상치 않은 디자인을 뽐내는 레스토랑 등 '유틸리티'가 될 수도 요소를 갖췄다.

주소 20, rue du Sauvage, 13200 Arles **사이트** www.artisan.com/en

리틀리안과 대조적으로 그랑 오텔 노르 파누(Grand Hôtel Nord Pinus)는 전통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호텔이다. 고흐의
노란색 카페가 위치한 포름 광장에 자리한 이 호텔은 20세기 초반부터 장 고흐, 피카소, 아바 가드너, 에드 피파트 등 문화
예술인들이 많이 들도록 둘러싸여있던 곳이니 전설이라는 편이 없었다. 빈티지 의자와 모로코 스타일의 조명, 벽에 가득한 유명
인물의 누은 사진, 여전히 변경과 없는 객실 등 문양의 편을 추구하는 장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매력
이 넘는다. 특이한 울게 3층 객실을 차려다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빛을 머릿속으로 감동적인 아를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주소 Place du Forum, 13200 Arles **사이트** www.nord-pinus.com





세계 아디를 기든 남쪽의 항구도시는 대체로 활기가 넘친다. 게다가 연중 3백 일이 햇살로 가득한 도시라면 두말하 무엇하랴. 파리에서 TGV로 3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3시간 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4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는 탁월한 지리적 입지를 자랑하는 남부 프랑스의 주요 허브 도시 마르세유. 프랑스가 낳은 세기의 축구 스타 지네딘 지단의 고향이자 그의 현란한 발 기술요즘 이강인 선수 덕분에 한국에서 더 유명해진에도 마르세유 턴(Marseille turn)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크루즈나 해상 스포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바다, 천혜의 자연이 펼쳐진 갈랑크 국립공원 등을 끼고 있어 영화 촬영의 무대로도 빈번히 애용됐지만, 이 항구도시에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었던 과거의 영광에 기대 산다는, 다소 허전한 이미지도 공존했다. 그런데 2013년 유럽의 문화 수도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1백90도 변신했다. 그 중심에 지중해를 배경으로 압도적인 오리를 뽐내는 독창적인 건축물 위생(MuCEM, 지중해 문명 박물관)이 있다.

지중해를 배경으로 들어선 '스펙터클' 현대 건축물
2013년 지구촌 문화 예술계의 눈길을 마르세유에 꽂힐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 파리가 아닌 도시에 분관 형태가 아닌 대형 국립박물관의 등장이라는 배경 덕분에 호기심이 쏠리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푸르른 지중해를 배경으로 그야말로 시선을 압도하는 '스펙터클'이 주는 효과 때문이었다. 항구의 대문을 지키는 상징적인 성당 요새(Fort Saint-Jean)의 베이직과 절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통해 상륙과 이어지는 현대적인 유리 건축물. 위생을 덮고 있는 반복되는 콘크리트 소재의 그물 문양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물 문양의 틈새로 쏟아지는 햇빛을 받으며 거닐면서 탁 트인 지중해를 바라보는 쾌감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다. 하지만 자연과 어우러지는 빼어난 건축물이 선사하는 이 감동이야말로 매년 1백5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이유일 것이다. 위생을 설계한 이탈리아계 프랑스 건축가 루디 리초티(Rudy Ricciotti)는 단순히 '스타티켓'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위생 사례로 활기를 띤 마르세유의 문화 풍경
이제 마르세유는 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 건축 사례는 성공적이다. 르 코브르에게 설계한 아파트 단지 시테 라디외즈(Cité Radieuse)를 비롯해 지하 하이드, 구마 겐코 등 장광한 건축가의 작품이 많지만 위생 호기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중요한 건 '완원이라는 집이다. 도시를 찾는 방문객 수가 많아지면서 마르세유 파인 아트 뮤지엄, 캄티니 등 사립 미술관이나 아트 센터 등 각종 문화 인원이 더 활발하게 콘텐츠 개발에 나서는 선의 경향 효과도 있다. 위생 역시 콘텐츠에 집중한다. 명칭이 말해주듯이 위생은 지중해 문명을 큰 주제로 다루겠다는 아심 아래 기획되었다(이집트, 기독교, 이슬람 문명 등을 아우르는 방대한 콘텐츠를 보유한 이유다). '지중해 문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애초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마르세유의 교차지 배경을 감안할 때 영리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오래된 문명만 파고드는 건 아니다. 3,690㎡에 이르는 전시 공간을 활용해 파카스 등 수준 높은 근현대미술 전시를 개최한다. 현재는 베니스에서도 최고전이라고 불리는 <장 뒤부페(Jean Dubuffet)> 전시가 진행 중이다(9월 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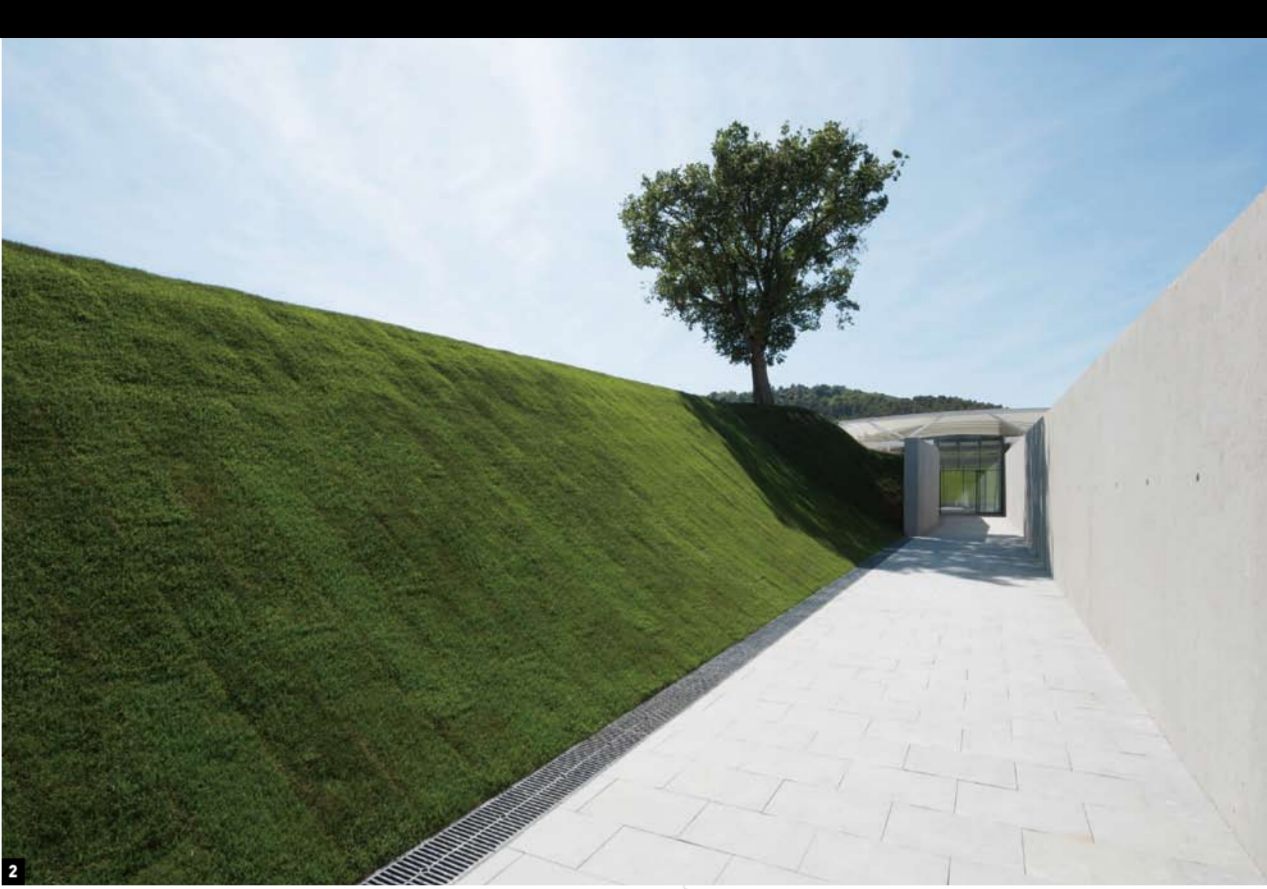


원 테이블 오 쉬드(One Table Au Sud)
햇살이 촉촉을 내려줄 때 마르세유의 구항구는 바가 올 때와 아주 다르다. 바다에 건물이며 오토며 모조리 반짝반짝 빛나는 풍경이 일출이다. 이처럼 예쁜 풍경과 함께 마르세유는 북극해 해줄 정소가 있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원 테이블 오 쉬드(One Table au Sud)는 그런 맥락에서 추천할 만한 곳이다(기중해 따라 언덕까지는 하지만 마르세유는 지방의 고유 음식인 '부아베스민을 먹어야 하는 아들도 있는 도시다.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면 2층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과 화사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공간이 펼쳐지는데, 프랑스에서 가장 젊은 미술관 스타 세르르 공하는 루도비크 튀라크(Ludovic Turac)가 꾸민 곳도 있는 레스토랑이다. 원래 토틀루스 출신의 유명 세프 리오넬 레비카가 차렸지만, 그가 2012년 말 호텔가로 떠났던 뒤 튀라크가 맡게 됐고, 2015년 미술관 스타를 획득했다. 미학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플라멩기 인상적이고 채색 등 재료의 식감을 살리는 솜씨가 뛰어난 디저트 메뉴가 빼어나다. 밤이 늦어지면 향긋한 내피는 이 풍경이 식욕을 북돋는 건 물론이다.

주소 2 Quai du Port, 13002 Marseille **사이트** www.unetableausud.com



1 엑상프로방스의 중심부에 있는 그라네 미술관(Musée Granet)과 이어져 있는 '성당' 건물. 폴 세잔을 비롯해 대가들의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Photo by SY Ko 2 천혜의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예술과 미시이 흐르는 샤토 라 코스트(Château la Coste). 도심에서 차로 30분가량 갈라는 외곽에 있지만, 방문할 가치가 차고 넘친다. 사진은 렌초 피아노의 파빌리온. ©RPBW Photo by Stephane ABOUDARAM. 3 올리트 칭사저 빅토르 바사렐리(Victor Vasarely) 재단 미술관은 엑상프로방스의 또 다른 문화적 보고다. Photo by SY Ko 4 그라네 미술관의 별관 2인 그라네 XXe. 스위스 아트 칼렉터 장 플랑크(Jean Planque)의 소장품은 파카스, 세잔, 고갱, 고흐, 브라크 등 대가들을 아우르는 긴밀한 만한 컬렉션의 집합이다. 5 일련의 건축 가장 안도 다디오의 손길이 닿은 건축물은 샤토 라 코스트의 입구에서부터 확립할 수 있다. 샤토 라 코스트에는 렉사르 리조트 빌라 라 코스트도 있는데, 숙박객이 아니라도 전망이 좋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다. Photo by SY Ko.



마르세유에서 북쪽으로 28km 떨어져 있는 엑상프로방스는 기원전 122년 로마의 집정관이 세운 도시다. 중세부터 프로방스 지역의 문화, 상업, 교육의 중심이라 여유가 흐르는 '맛쟁이' 도시로 통한다. 그러면서도 거주인 중 약 3분의 1이 학생이라 젊은 활기가 느껴진다. 바다를 면하지 않은 내륙 도시지만,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한 온천수로 유명하고, 도시 곳곳에 자라다의 개성이 담긴 다채로운 분수를 볼 수 있다. 이 도시를 짧게 즐겨 부르는 별칭인 엑스(Aix)는 고대 라틴어로 물(aqua)을 뜻한다고. 7월에는 오페라와 클래식 연주를 접할 수 있는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도 유명하다. 하지만 엑스는 워니 뒀니 해도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폴 세잔(Paul Cézanne)의 고향으로 제일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당연히 세잔의 자취가 곳곳에 묻어 있고, 그의 생애를 따라잡는 '세잔 투어'가 흔하지만 그게 전부일리는 없다. 특히 '현대적' 인 요소가 더 풍부해지면서 이 도시의 매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전통과 동시대성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공간들
엑상프로방스에는 '의외의 반가움'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현대미술 공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올리트 칭사저 빅토르 바사렐리(Victor Vasarely) 재단 미술관이다. 향리인 태생인 바사렐리는 1960년대 초부터 남프랑스에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 1976년 자신이 몸소 설계까지 기며 엑상프로방스에 미술관을 지었다. 올해 파리 폼파두 센터에서 최고전이 열리면서 디지털 시대에도 그만의 혁신성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바사렐리는 다양한 사장에서 본 대상의 부분을 모아 하나로 구현하는 '다시점(多視點)' 구성으로 현대미술의 시작점을 짚었다는 평가를 받는 세잔을 존경했다고 한다. 바사렐리 재단 미술관은 외관부터 내부 전시장까지 기하학적 형태와 미묘한 색채의 조화, 원근법 등으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옵아트의 면면을 제대로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도 열린다. 18세기의 유서 깊은 저택을 미술의 전당으로 탈바꿈한 코몽 아트 센터도 이 도시에 예술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수준 높은 기획전 뿐만 아니라 대칭미가 돋보이는 고이한 프랑스식 정원에서 미술을 즐길 수 있는 7개도 인기 명소이다.

천혜의 자연 속 '미술관'
샤토 라 코스트(Château la Coste)
엑상프로방스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에 드넓은 와이너리와 동시대 미술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흔치 않은 곳이 있다. 천혜의 자연 풍경을 따라 끝이 어딘지 모르게 펼쳐진 샤토 라 코스트(Château la Coste). 안도 다디오의 건축물을 배경으로 루이즈 부르주아의 '가미'가 물 위에 떠 있고, 칼다의 큰 조각이 함께하는 도입부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다. 처음에는 와이너리 주인이 친구인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설치 작품을 하나둘 들여놓으면서 마치 방대한 야외 미술관처럼 확장된 사례다. 장 누벨, 톰 새튼, 대니얼 리버, 그리고 한국이 낳은 가장 우수한 작품 등을 비롯해 긴 선형을 하다 보면 계속 마주치는 예술 작품들이 황홀할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물론 지금도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입성하고 있다.



매종 뒤 콜렉시오너르(Maison du Collectionneur)
섬세하게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고된 기구와 오버제를 통해 젊은 주인이 자신 취향의 미학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작은 호텔이 자체 여름 엑상 프로방스의 중심부에 들어섰다. 마르보 가리 등 마르세유 지역의 중심에서 가깝고 그래서 뮤지엄, 코몽 아트 센터 등 웅장한 뮤지엄을 지칭해 둔 매종 뒤 콜렉시오너르(Maison du Collectionneur), 캄보에는 별난 대문뿐만이 안뜻 숙박업소인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사실 잘 보면 입구에 있는 비탈렌호 카페도 위에 명함 한 장이 없지 않다)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화사하고 세련된, 그러면서 안락한 감성의 인테리어에 기분이 좋아진다. 6개의 방도 자마다 아름다운 개성을 품고 있다. 호텔 명에 포함된 '콜렉시오너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이 이튼의 디자인을 사랑하는 컬렉터인 주인은 호텔에 버려지는 작은 물건도 심려 있는 브랜드에 따로 주문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인지 근육 강장을 두는 데 좋은 볼렌트 오일 제품이 욕실에 놓여 있는 등 작은 기쁨을 선사하는 요소가 눈에 띈다.

주소 19 Rue Roux Alphan, 13100 Aix-en-Provence
사이트 www.maison-du-collectionneur.com



In the Steps of Paul Cézanne



Aix-en-Provence



Marseille

현재 엑상프로방스에서는 '세잔의 개인전은 아니지만 그의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두 가지 전시가 열리고 있다. 우선 지금은 아트 애호가라면 일부러 찾아갈 정도로 유명한 곳이지만, 세잔이 없었던 별 관심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는 '생트빅투아르산을 소재로 한 그룹전이 그라네 뮤지엄(Musée Granet)에서 펼쳐지고 있다. 또 이 도시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코몽 아트 센터(Hôtel de Caumont - Centre D'Art)에서 진행 중인 '구겐하임 컬렉션 전시에서도 생트빅투아르를 담기 위해 작가가 수없이 찾았던 비베무스(Bibémus) 채색장을 특유의 붓놀림으로 녹여낸 풍경화를 볼 수 있다. '세잔 루트'를 따라가보자.

많은 후배들이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칭송하는 폴 세잔(Paul Cézanne, 1839~1906)이지만 정작 자신은 몹시 내성적이고 예민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던 인물이다. 사생이긴 했지만 엑상프로방스에서 모자 사업을 하다가 은행을 설립한 재력가 아버지를 둔 덕에 경제적인 고민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창작 여정 말년에 이르러서야 화단의 인정을 받은 탓에 자신이 설정한 수준에 스스로의 재능이 혹여 못 미칠까 전전긍긍했다. 또 원래 부친의 뜻에 따라 법학도의 길을 걸으려 했지만, 도무지 흥미를 못 느껴 어머니의 도움으로 파리에서 회화를 공부하고 아티스트의 길을 택한지라 부친의 눈치를 봐야 했다. 소용에도 서를 못했다. 대중의 외면과 주변의 냉소적인 반응,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당대의 지성 에밀 졸라와의 절교 등으로 힘들어했다. 그래서일까. 꽤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들어 보이는 '노안'이기도 했지만, 세잔의 자화상을 보면 대부분 초췌하고 뿔치 모르게 불안정해 보이는 구석이 있다.

'외톨이 세잔의 인식 같은 곳이었지만 부친의 눈치를 봐야 했던 고향

그런 세잔에게 고향은 특별한 곳이었다. 1861년부터 1870년 사이 파리에 살고 있을 때도 그는 엑상프로방스를 자주 방문했다. 당시 미술 아카데미는 무척 보수적이어서 전통적인 신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양식에 따르지 않는 작품들은 '거부당했다. 당시의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이 같은 보수성에 대한 반발과 동요를 막기 위해 1863년 아카데미의 미술 전

람회에서 거절당한 화가들을 중심으로 '낙선전을 개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젊은 미술가들은 화단의 비평에 더욱 굳건히 뿔치지만, 세잔은 특유의 수줍음 많고 모난 면모가 있는 성격 탓에 이들과도 그리 잘 지내지 못했다. 그는 어둡기는 했지만 자유분방하고 힘이 흐르는 화법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나갔다.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이 발발했고, 징병을 피하고자 그는 프로방스로 향했다. 연인 마리 오르탕스 피케(Marie-Hortens Fiquet)와 엑상프로방스가 아니라 남부 바닷가 마을인 에스타크에서 보냈는데, 이때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1972년 아들 폴이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대부분 같은 존재인 카미유 피사로(Camille Pissarro)의 초청으로 퐁투아즈로 이주했다. 이 시기에 세잔은 피사로와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야외에서 작품을 많이 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색점을 흠뻑리는 듯한 인상파의 붓놀림과 달리 입체적인 느낌과 건축적인 선, 색의 조화 등을 활용해 대상의 '구조'에 초점을 뒀다. "모든 자연현상은 원기둥, 구, 원뿔로 함축된다"라는 세잔의 말은 '명언'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를 알아주는 이는 거의 없었고, 그는 1878년 엑상프로방스로 돌아가 가족과 지냈지만, 아버지의 무시를 견뎌내야 했다. 결국 그는 인상파와 '결별'했고, 스스로를 더욱 외롭게 하는 독자 노선을 택했다.

하미터면 사라질 뻔했던 세잔의 아틀리에

모든 일에는 장단이 있는 법. 이처럼 고립된 시기에 그는 강



8

1, 3 1906년 그가 별세했을 때의 독립은 모습으로 남아 있는 폴 세잔의 마지막 아틀리에. 캔버스와 이젤, 옷걸이에 걸린 코트와 모자 등이 채광 좋은 실내 공간에 놓여 있는데, 이곳을 찾는 이들은 작가의 예술혼을 느끼면서 그 유명한 정물화 속 사과 등을 절로 상상하게 된다. 2 엑상프로방스의 품격 있는 전시 공간인 코몽 아트 센터(Hôtel de Caumont - Centre D'Art)에서 열리고 있는 구겐하임 특별전 (Masterpieces from the Guggenheim Foundation)에 선보인 세잔의 정물화 'Fiasque, Verre et Poterie'(1877년 작품으로 추정,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Thannhauser Collection, don Justin K. Thannhauser, 78.2514.3 이미지 제공: 코몽 아트 센터). 4 엑상프로방스 중심부에 세운 폴 세잔의 동상. 5 세잔이 커리어 후반부에 자주 찾았던 비베무스(Bibémus) 채색장. 이곳에서는 세잔의 단골 소재 중 하나였던 생트빅투아르산이 멀리서 보이는데, 그는 이 각도와 거리를 시험했다. 6 세잔이 비베무스 채색장 내에서 휴식 공간으로 쓰던 오두막. 7 철 성분 때문에 미스한 오렌지빛이 나는 바위를 흔히 볼 수 있는 비베무스 채색장 풍경. 8 생트빅투아르산의 모습. ©Sophie Spiteri. 9 코몽 아트 센터의 구겐하임 특별전에서 선보인 세잔의 유화 작품. 'L'Homme aux Bras Croisés'(1899년 작품으로 추정,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54.1387 이미지 제공: 코몽 아트 센터). 10 그라네 뮤지엄에서 오는 9월 29일까지 열리는 '생트빅투아르산' 전시에 나온 유화 작품. 'La Montagne Sainte-Victoire'(1902), 102.5 X 86cm. Fondation Henry et Rose Pearlman, Prêts de Longue Durée au Princeton University Art. 이미지 제공: 그라네 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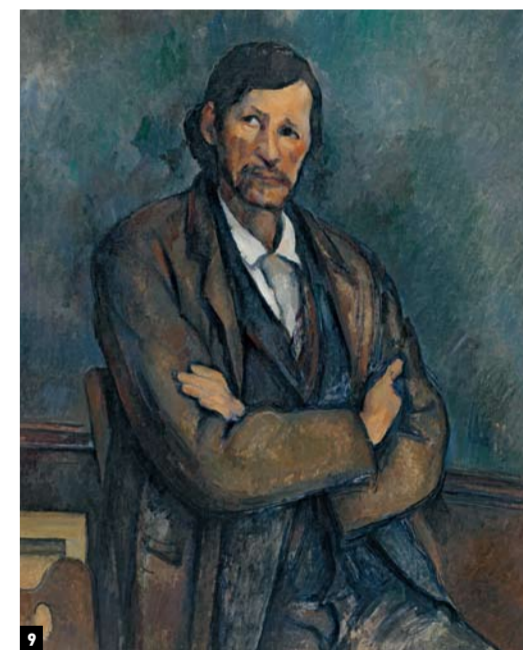
렬한 색채와 단순한 형태만으로 대상의 부피와 깊이를 담아 내면서 자연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성숙시켰다. 개념적인 추상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자연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서 구조에 집중하는 그에게서 피카소, 브라크 등의 입체파가 많은 영감을 얻었다. 1886년은 47세의 세잔에게 몹시도 고통스러운 해였다. 같은 해에 '절친' 에밀 졸라와 절교하고 아버지를 여의는 아픔을 잇따라 겪었다. 하지만 그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면서 재정적으로 독립했고, 주로 엑상프로방스에 머물면서 작업에 매진했다. 1901년에는 엑상프로방스 외곽에 무화과와 올리브나무가 무성한 아리따운 정원이 있고, 채광이 좋은 실내에는 장미 무늬 벽지를 바른 자신만의 아틀리에를 마련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스케치를 하러 나갔고, 아틀리에에서 해가 질 때까지 그림을 그리는 소소한 일상을 반복해서 이어나갔다. 아마도 그런 안정된 창조 여정 속에서 나뭇 사이의 평정을 찾은 것일까. 이때 그린 자화상을 보면 세잔은 더 이상 고집만 세고 불만투성이 노인처럼 보이지 않는다. 1906년 세잔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아틀리에에는 마르셀 프로방스라는 인물이 사들였는데, 그의 사후에는 마땅히 거둬야 할 것이 없었다. 그러자 아틀리에의 운명이 혹여 잘못된 길로 갈까 걱정된 벤들이 기념회를 설립해 이곳을 매입하고 엑상프로방스 마르세유 대학에 기증했다. 지금은 시의 소유가 되어 늘 방문객으로 들끓는다. 필자가 이 아틀리에를 방문했을 때도 학교 수업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들로 공간이 가득 찼다. 그가 살았던 생의 대부분에 걸쳐 자신의 고향에서조차 팬이 많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서툰 차이 나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생트빅투아르산을 수없이 담아낸 채색장 비베무스

세잔의 정물화에 '사과'가 자주 등장했다면 그가 그렸던 풍경화의 단골 소재는 단연 엑상프로방스 근방에 있는 생트빅투아르(Sainte Victoire)산이다. 그는 이 산을 비슷한 각도에서만 담아냈는데, 그 '스위트 스폿'이 비베무스 채색장

(Carrières de Bibémus)이었다. 철 성분 때문에 오렌지빛 바위가 여기저기에 보이는 이 채색장은 현재는 미리 '투어를 신청'해야만 둘러볼 수 있는 시영 관광지로 남아 있는데, 거의 항상 북적거리는 세잔의 아틀리에나 세잔 가문의 별장 등과는 다르게 대개는 한적한 편이라서 고요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산책로다. 실제로 채색장 내부뿐 아니라 근처에 수려하게 펼쳐진 숲과 호수 등을 아우르는 코스가 따로 있기도 하다.

7헥타르 면적의 이 채색장 부지에는 손상되지 않은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적막이 흐른다. 하지만 가만히 거닐다 보면 대자연의 다정한 속삭임이 들려온다. 올리브, 플라타너스, 소나무 등 다양한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깨끗한 공기와 그늘을 선사하고, 온갖 종류의 꽃들이 혹여라도 외로움을 탈까 봐 차마다 시끄럽지 않게 재잘거리면서 마치 빛이 되어주는 듯하다. '외톨이'를 자처했고, 늘 정해진 시간에 작업에 매달렸던 '워커홀릭' 세잔이 좋아했을만한 장소임에 틀림없다. 세잔이 채색장의 황량해 보이는 풍경과 생트빅투아르산을 담아낸 시기는 1895년부터 1904년. 이를 위해 세잔은 이곳을 거의 매일 찾았고, 심지어 작은 거처까지 마련해줬는데, 지금도 소담스럽게 핀 꽃들 사이에 이 아담한 집이 남아 있다. 날카롭고 대담한 붓놀림으로 세잔의 화폭에 담긴 오렌지빛 바위들을 배경으로 한 숲속 산책은 여유 있는 걸음으로 전문 가이드의 설명까지 듣다 보면 넉넉하게 2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스폿'은 그야말로 화풍정점이다. 멀리서 은은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생트빅투아르산이 시야에 들어오는 가운데, 마치 세상의 모든 녹색을 모아놓은 듯한 경이로운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아무리 사진을 찍어봐도 제대로 담기지 않고, 그대로 스케치를 해봐도 10분의 1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없는 풍경이다. 그래서 세잔은 이런 말을 남겼을 것이다. "자연을 그린다는 것은 대상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감동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글 곽성연



9



10

아트부산(Art Busan) 2019 Open and Lively

탁트인 푸른 바다와 해안선을 따라
츄츄히 들어선 고층 건물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부산. 늘 활기 넘치는
항구도시지만, 지난 5월 말에는 좀 더 특별했다.
국내 상반기 최대 아트 페어 아트부산 2019와
더불어 문화 예술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졌기 때문.
아트부산이 열린 BEXCO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
수만 6만3천여 명. 작품 거래가 상업적 흥행의
온도만큼 폭발적이지 못했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맥락에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축제였다.



올해 8회를 맞은 아트부산(Art Busan)은 골목길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첫해에 2만 명 수준(7개국 64개 회관)이었는데, 올해는 17개국 1백64개 갤러리가 참가했으며, 6만 명을 훌쩍 넘는 관람객을 동원했다. 특히 이번엔 부스를 차린 58개의 해외 갤러리 중에는 아트 바젤에 참가한 유럽 회랑이 포함돼 단순한 수치 증가가 아님을 보여준다. 베를린의 소시에테(Société)와 코니히 갤러리(König Galerie), 페레스 프로젝트(Peres Projects), 그리고 파리와 뉴욕 등에 전시 공간을 둔 알민 레슈(Almine Rech), 네 곳이다. 또 아트 바젤 홍콩의 '엔카운터스(Encounters)'처럼 개별 작가의 설치 작품을 소개하는 '프로젝트(Projects)' 섹션을 올해 처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나이지리아계 영국 거주인 양카 쇼니바레 CBE(Yinka Shonibare CBE)의 사진지 국가의 문화적 혼성과 역사 의식을 기반으로 한 조각 작품. 프랑스 지역의 전통 천을 활용해 회화의 구조적 아름다움에 대한 성찰을 담은 클로드 비얌(Claude Vialat)의 설치 작업과 인간의 움직임 입과 정적인 사물의 관계성을 파묘만으로 보여주는 안드레아스 에미니우스(Andreas Emenius) 등을 등장시켜 상업적 기능만이 아니라 동시대 이슈를 제시하는 역할도 놓치지 않은 점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올해의 아트부산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어로 인정받은 데에는 미술 관계자를 비롯한 국내외 컬렉터,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덜 넉넉한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문객을 포용한 '콘텐츠의 다채로움'이 한몫했다.

SNS 시대, 소수가 아닌 경향으로 즐기는 미술
어느 갤러리의 부스 한가운데 이색적인 플리쉬 숨이 들어섰다. '롱롱디넵를 라워라'고 명명한 일라스트 종이 꽃 20여 가지가 놓여 있는데, 단돈 5천원이면 꽃 한 송이를 살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원도페인터, 일라스트레이터, 디자이너 등 수작업이 다양한 나날 작가의 작업이다. 그녀의 '시들지 않는 종이 꽃다발 프로젝트'는 10, 20대의 발길을 끌면서 SNS 최고 인기 부스로 등극했다. 1세대 쇼핑물 CEO이자 피우 인물루언서로 SNS상에서 팬층이 두꺼운 강화재와의 협업도 눈에 띄었다. 자신만의 색이 있는 컬렉션으로 꾸민(강화재: 명량한 수집생활동)이란 제목의 특별한 전시 소통 방식이 날랐다. 여타 갤러리라면 대표작이 걸렸을 때인 율을 핑크색으로 칠하고, 그곳에 디자인 의자를 곁들인 '#Photozone'을 마련해 사람들이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올해 아트부산 현장에는 SNS를 통해 자신의 취향과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스폿이 근대관에 숨어 있었다. 비싼 작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자신들과 나들이 삼아 아트 페어를 즐기는 경향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아트부산의 전략은 고가 작품을 차출하는 상업 논리로는 손해할 수도 있지만, 소비보다는 경험이 중요해진 문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현대미술 풍경 속으로 들어온
스트리트 감성의 크리에이티브 그룹
올해 아트부산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백스조 전장을 벗어난 도심에서 소위 '크리에이티브 그룹'으로 일컫는 이들이 펼쳐낸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롭고 동시대적인 풍경이었다. 과거 합법이나 스트리트 문화에서 방황성이 같은 이들이 모여 팀으로 활동했던 크루(Crew) 문화가 최근 예술계로 서서히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트부산 기간에 영화의전당에서 전시를



치른 WTFM(What the Fun Man)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그룹. 이들은 이번 전시에서 의자와 매트리스, 조명, 토이 등 일상의 가구와 오브제가 해체와 재조합, 낡은 낙서와 다채로운 그래픽의 흔적을 통해 본래의 쓰임과 형태의 골격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유로움과 해방의 정서를 내뿜었다. 젊은 크리에이티브 그룹이 지난 자유로운 에너지와 서브컬처의 조화는 국가와 인종, 문화, 언어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감성을 충진하는 커뮤니티로 확장한다. 그 가운데 파우와우(Pow! Wow!)는 전 세계 1백여 명의 아티스트, 뮤지션, 포토그래퍼 등으로 이뤄진 커뮤니티로 변화와 그래피티 기반의 설치 작품을 주로 한다. 파우와우 코리아는 아트부산 2019 특별전으로 비둘기를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 벨기에 아델 르노(Adele Renau)를 비롯해 제프 그레스(Jeff Gress), 슈트맨(Suitman) 등 우수 작가들이 가담한 복합 설치 작업을 영도 현여울 문화마을에서 진행했다. 지역에 보다 문화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서브컬처를 현대미술 풍경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전달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사례였다.

젊은 감각과 참신한 도전 속에 새롭게 싹트는 아트 신
부산의 아트 신이 한층 풍부해졌다. 지난해 올스도 부산현대미술관이 문을 열었고, 국내 메이저 회랑인 국제갤러리 부산점이 망미동의 복합 문화 단지 F1963에 동자를 틈 것. 올해는 서울에서 부산 망미동으로 아예 터전을 옮긴 갤러리 메이의 행보도 이목을 끈다.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갤러리 메이는 20~40대 국내외 젊은 작가의 참신하고 개성 있는 전사로 지역 미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가이아트 부산, 아트부산 사육을 중심으로 소규모 갤러리, 창작 공간, 카페 등이 들어서는 망미동 앞에는 새로운 아트 지구'가 될 조짐도 보인다. 사실 아트 페어는 속성상 참가 갤러리가 해마다 들고 나오는 작품의 결이 비슷하므로 보여주는 방식이나 분위기로 차별화하지 않으면 관람객 입장에서는 실종이 날 수도 있다. 진정한 동시대 담론도 좋지만, 미술 소비에 대한 재편이 벌어지는 트렌드를 반영해 모두가 즐기는 축제로서 면모를 갖추려는 아트부산의 소통 방식은 나름 영리한 선택으로 보인다. 글 김현경(큐레이터) edited by 고성연



부산, 아트 도시로서 가능성을 타진하다

20세기가 '초대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도시화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1세기 전만 해도 세계 인구의 약 10분의 1이 도시에 거주했지만, 오늘날엔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는 현실을 보면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도시와 차별화한 영리한 '도시 브랜딩', 그리고 그 속을 채운 문화 콘텐츠가 갈수록 중시되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트 도시라는 수식어를 둘러싼 경쟁이 제법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을 둘러싼 공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까지는 영화제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제 항구도시 특유의 개방성과 포용력으로 아트 도시로서 가능성을 점치게 된다.

요즘 부산은 아트 신의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여름 올스도에 들어선 부산현대미술관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관람객 13만 명을 동원했고, 국내 주요 아트 페어로 자리매김한 아트부산(Art Busan)의 성공을 계기로 수도권 갤러리의 부산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 항구도시에 꽤나 흥미로운 미술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근현대미술의 보고로 여겨지는 대구처럼 미술품 애호가의 '내공'이 탄탄하지도 않고, 광주처럼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글로벌 비엔날레가 열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의 미술 풍경을 보노라면 꿈틀거리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성공적 '브랜딩' 아트 페어의 힘

세계 미술 생태계를 보면 크게 아트 페어, 비엔날레, 옥션, 세 속으로 돌아간다. 이 중 아트 페어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단순히 '큰손' 컬렉터의 취향을 반영하고 세계적 유행을 좌우하는 현대미술 장터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역량 있는 젊은 작가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와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시도가 녹아든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최신 이슈를 진지하게 논하는 담론을 펼칠 수 있는, 다각적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 한 예로, 홍콩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트 허브'로 거듭난 데에는 아트 페어가 한몫 토틈 했다. 2008년 아트 바젤 홍콩의 모태가 된 홍콩 아트 페어(Hong Kong International Art Fair)가 설립되면서 미술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질 무렵 가고시안, 리먼 머핀, 화이트 큐브, 페로 탱 같은 '스타' 갤러리의 아시아 분점이 속속 입성했다. 이어 2013년에는 굴지의 아트 페어 브랜드 '아트 바젤'을 운영하는 스위스 MCH그룹이 홍콩 아트 페어를 인수했다. 홍콩은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다. 좁게는 아시아, 멀게는 서구권의 미술계 인사와 컬렉터가 홍콩을 찾았고, 이에 발맞춰 정부

와 비영리 예술 기관, 갤러리가 모여 아트 주권을 만들기도 했다. 미국 마이애미 역시 2002년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Art Basel Miami Beach)가 처음 열린 이래 북미 지역을 대표하는 아트 페어로 자리매김했다. 그사이 대규모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중소 갤러리가 속속 생기는 등 생태계가 다양해진 건 물론이다. 마이애미가 나란한 휴양 도시에서 세련된 건축과 디자인의 도시로 변모한 데에는 아트 바젤의 공이 컸다는 평가다.

다양한 매력이 숨어 있는 부산의 잠재력

아트 페어는 지극히 자본 친화적 행사다. 그래서 각 도시 고유의 인프라를 대폭 활용하는 '지역 축제'로서 확장성을 지닌다. 넓은 해변과 긴 해안선을 따라 들어선 고층 빌딩의 풍경을 거느린 부산은 흔히 LA와 마이애미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살짝 어정쩡한 이미지를 뽐내는데도 모른다. 그러나 부산은 다면적 매력을 품은 도시다. 첨단 도시를 향해 달리는 대도시지만 임시 수도로서 역사, 근대 도시의 형성과 개발 과정에서 남은 흔적은 오늘날의 부산과 공존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어려운 부산의 독특한 풍경은 예술적 토양이 되기에 충분하다. 오래된 수리 조선소와 낙후된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 그리고 산복도로 등 구도심의 모습을 간직한 공간으로 거리를 미술을 이끌어 내어 사공간을 넘나드는 혼성적이며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간다. 지난 10여 년간 도시 재생 정책으로 진행해온 예술 마을 조성 사업, 거점 감성 문화마을이나 영도 현여울 문화 마을, 장림포구, 강경이 예술마을의 벽화와 공공 조형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문화 예술 콘텐츠는 도시 아트 페어나 비엔날레의 장외 프로그램과 연계되면서 부산 특유의 정체성과 동시대 미술이 결합한 흥미로운 관광인

프리를 만들어낸다. 사실 아트 페어, 비엔날레 같은 행사의 역할은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기도 하다. 도시 자체의 활력과 더불어 아트 부산의 꾸준한 성장은 외부로부터 컬렉터와 아트 딜러, 큐레이터, 작가 등 다양한 층위의 미술 관계자를 끌어 모으며 다양한 아트 인프라에 대한 수급을 부추기고 있다. 망미동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F1963이 대표적 사례다. 부산시와 고려제강이 협력해 폐공장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 이 복합 문화 단지의 등장을 계기로 일대가 긍정적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해 국내 메이저 회랑인 국제갤러리가 F1963에 입점한 데 이어 인근에 가나아트 부산, 갤러리 메이 등 중소 갤러리가 모여들면서 일종의 아트 지구'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비단 망미동에 한정된 변화만은 아니다. 향후 2~3년 안에 KT&G 상상마당, 부산 오페라 하우스 등 복합 문화 공간과 조현화당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부산에 지을 예정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도전이다

물론 아트 도시의 가능성을 외연적 성장과 파급 효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예술적 토양을 뒷받침하는 기본 가치가 중요하다. 사실 부산은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한 지역 작가의 규모가 타 도시에 비해 작은 데다 컬렉터나 갤러리 숫자도 부족하다. 어쩌면 그래서 부산 미술계가 특정 집단이나 운동에 얽매이지 않고 특정 인물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는지 모른다. 자연스럽게 젊은 미술인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며 신선한 도전을 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테고, 부산 미술계가 품은 청년성, 다양성, 개방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외부 세계로부터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글 김현경(큐레이터) edited by 고성연



Christian Boltanski in Tokyo

삶과 죽음의 기억을 그리다

지난 6월 12일과 13일, 도쿄 국립 신 미술관(The National Art Center Tokyo)과 에스파스 루이 비통 도쿄(Espace Louis Vuitton Tokyo)에서 잇따라 베일을 벗은 프랑스 현대미술계 거장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전시. 기억이라는 주제와 결코 망각하지 않으려는 의식에 집착하며 자신만의 신화와 전설을 구축한, 반세기에 걸친 볼탕스키의 작품 세계를 밀도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건 불변의 진리다. 하지만 소중한 누군가를 잃기 전까지 죽음은 마나면 일로 치부되거나,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여러 차례 떠나 보낸 기억이 있다면 그저 흐르는 시간 앞에 무덤덤하게 기다리는 시간의 끝맺음이기도 하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외면하기 일쑤인 이 사실을 평생 동안 환기해온 예술가가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다. 1944년생으로 유대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유대인 학살을 어렵잖이 목격한 그는 1967년부터 기억과 소멸하는 시간에 초점을 맞춘 작업 활동을 시작했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가 살아가며 겪은 증대한 순간과 사연을 담아내는 볼탕스키는 글, 영화, 조각, 사진 등 장르를 넘나들며 진실과 허구의 이야기를 섞은 작품의 재구성을 시도해왔다. 그는 직접 수집한 사진, 신문, 아카이브는 물론 작가 자신이 일곱 살(1951년) 때 신은 장화 한 켤레를 점토로 복원한 오브제부터 가방, 옷, 모자에 이르기까지 기억을 지어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개인, 나아가 공동체가 맞닥뜨린 운명의 굴곡진 여정을 따라 감성적 강렬함을 담은 설치 작업을 한다.

켜켜이 쌓인 기억의 합주, 소멸의 시간을 다루다

〈라이프타임(Christian Boltanski-Lifetime)〉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열리는 도쿄 국립 신 미술관 입구. 프랑스어로 '출발'을 뜻하는 'DÉPART' 내온사인 작품 너머로 잔잔히 고동치는 심장 소리를 뚫고 나오는 고통스러워하는 누군가의 기침(L'homme qui Tousse(기침하는 남자), 1969)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 바지가 흥건히 젖을 때까지 피를 토하며 기침하는 기이한 (인형 탈을 쓴) 인간 형상의 생물체를 포착한 짧은 영상은 그 강렬함에 절로 발길을 멈추게 된다. 그렇게 이어지는 전시 공간에는 켜켜이 쌓인 녹슨 박스 위로 흐리게 미소 짓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리게 한다. 모든 것이 마냥 신기해 보이는 나이의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은 삶을 채 못지치지 못하고 짧게 타는 듯 불처럼 생명이 꺼져갔을 것이다. 전구를 무한히 잇는 검은 줄은 그들을 옥죄 거미줄을 형성화한 듯하다. 관람객이 작

품을 온전히 이해하기보다는 사색의 계기로 삼고 자신의 이야기를 채워가면 좋겠다고 말하는 노장의 회고전을 감상하다 보면, 눈 감은 무표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다양한 표정의 어린아이와 어른의 모습이 벽을 뚫고 튀고 있다. 전쟁이라는 비극이 초래한 죽음을 다루던 시대의 목격자는 나이가 보다 근원적 죽음을 탐구하기에 이른다. 최신작 'Terril(탄광, 2015)에서는 누구의 소유였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개인성도, 추억도, 형태도 사라진 검은 옷 더미를 마주하게 된다. 이 전시는 9월 2일까지 계속된다.

아니미타스: 존재의 변덕스러움, 망각, 상실, 시간을 다루다

도쿄 오모테산도에 위치한 에스파스 루이 비통 도쿄에서 국립 신 미술관 전시와 연계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열리는 볼탕스키의 또 다른 전시 〈아니미타스 II(Animitas II)〉. 파리에 있는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미공포 소장품을 선보이는 미술관 밖 너머의 일화로 열리는 전시로 수년 동안 작가가 열중해온 '아니미타스' 연작의 영상 2편을 선보인다. 아니미타스는 망자를 기리는 길가의 작은 재단을 표현한 것으로 3백여 개의 가느다란 줄기에 달린 초롱꽃 종으로 이뤄진 한적한 풍경을 담은 설치물이다. 시간이 흐르며 사라지도록 고안한 이 설치물은 해당 장소에 얽힌 수천 영혼의 이야기와 볼탕스키 개인의 과거를 모두 아우른다. 아니미타스를 소재로 한 영상 시리즈의 첫 번째 버전은 황량한 아타카마 사막을 배경으로 작가의 생일에 남반구에서 관찰되는 은하수를 재현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번에 루이 비통 전시 공간을 수놓은 작품은 각각 일본 데시마섬과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서 동일한 구성으로 재해석한 '아니미타스: 속삭임의 숲(Animitas: La Forêt des Murmures)'(2016)과 '아니미타스: 사해(Animitas: Mères Mortes)'(2017년 가을). 풀 내음 가득한 전시 공간에 은은하게 투영한 영상은 일출에서 일몰까지 한 번에 촬영해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영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풀과 꽃의 물결 속에서 관람객이 귀 기울이는 종의 부드러운 흔들림은 작가가 묘사한 '별의 음악과 떠다니는 영혼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작가가 그토록 '도착(ARRIVÉE)'하고자 한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글 황다나** **edited by 고성연**



2 안니미타스 II,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3 바리캣 컨템포러리,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 아니미타스: 사해,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1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 Photo by 크리스티앙 카인(Christian Kain). 이미지 제공: 루이 비통. 2 Entre-temps(2010). Collection of the artist ©Christian Boltanski/ADAGP, Paris, 2019. Photo: ©The Israel Museum, Jerusalem by Elie Posner. 3 Monument(1988). Collection of the artist ©Christian Boltanski/ADAGP, Paris, 2019. ©The Israel Museum, Jerusalem by Elie Posner. 4 Terril(2015). Collection of the artist ©Christian Boltanski/ADAGP, Paris, 2019. ©MACA's Grand Hornu, Belgique, Photo by Philippe De Gobert. 5 아니미타스: 사해(2017).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10시간 33분). Courtesy of the Fondation Louis Vuitton(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Adagp, Paris 2019. *사진 2, 3, 4는 도쿄 국립 신 미술관의 전시, 5는 에스파스 루이 비통 도쿄의 전시 이미지.

Remember the EXHIBITION

침착한 매력에 돋보이는 국내 신진 작가부터 흥미로운 방식으로 창조적 지평을 넓혀가는 해외 아티스트, 국내외를 아우르는 세계적 거장의 개인전까지. 2019년 하반기에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소식.



국재갤러리 부산 하중현 개인전
〈Ha Chong-Hyun〉
최근 LA, 파리, 런던, 뉴욕, 도쿄 개관전 등 국제 활동에 주력해온 한국 화단의 대표 작가 하중현이 국내에서 4년 만에 갖는 개인전. '회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50여 년간 회화를 다뤄온 작가의 대표 연작 '접합(Conjunction)' 근작과 신작 10여 점을 소개한다. 다양한 재료를 접목한 실험적 작업 방식과 새로운 색채의 기법으로 회화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작가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기회.
전시 기간 7월 28일까지 문의의 kukjegaallery.com



아트스페이스 광고 개관전
〈최정화, 집화〉
익숙하고 평범한 재료를 사용해 특유의 조형 감각이 돋보이는 설치 작품으로 주목받는 작가 최정화는 일상, 예술, 비예술의 경계를 넘어선 특별한 시공간을 탄생시킨다. 세상의 모든 물건으로 차린 잡화점이라 소개한 이번 전시를 통해 과일나무, 달팽이와 창개구리, 'Love Me' 등 아외 설치 작품, 타타타, '눈이 부시게 하겠음', 빛, 음, 빛을 비롯한 다양한 신작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 8월 25일까지 문의의 sima.suwon.go.kr



대구미술관 〈박성광展〉
1980년대 초반 민화, 불화, 무속화 등에서 발견한 전통적 이미지를 강렬한 색채와 수묵, 채색을 혼합한 독창적 기법으로 표현하며 채색화의 새 지평을 연 박성광 작가 회고전. 작가가 고유의 화풍을 찾고자 분투하며 다양한 실험을 시도한 시기부터 '그대로 화풍의 전개 시기에 걸쳐 평소 잘 공개하지 않던 드로잉 작품 80여 점과 미완성 유작 '노적도' 외 회화 82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10월 20일까지 문의의 artmuseum.daegu.go.kr



바리캣 컨템포러리
〈게리 흄: Looking and Seeing〉
1980년대 후반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수학한 게리 흄(Gary Hume)의 개인전. 알루미늄 패널에 유광 페인트로 그린 매끄러운 표면과 화려한 색감으로 알려진 작가는 어머니, 아이, 꽃, 새, 눈사람 등 익숙한 대상을 분석·관찰한 뒤 형태를 지르거나 확대해 완전히 새로운 조형으로 재구성한다. 추상, 구상, 입체, 평면 같은 고정 언어에 도전하는 그의 작품은 진정성 있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 기간 8월 4일까지 문의의 barakatcontempora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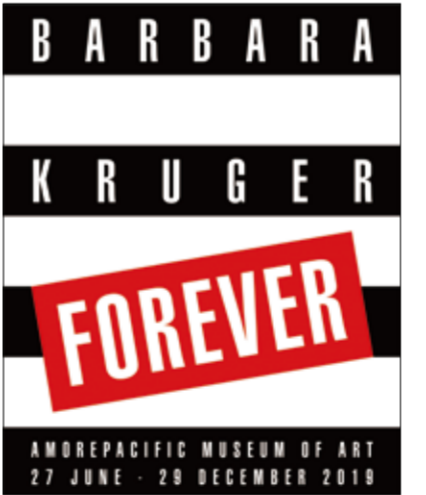
뮤트뮤즈 〈The Art of Yellow〉
콜라주 작업을 통해 예술의 경계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아티스트 B.D 그라프트(B.D. Graf)가 다양한 아티스트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라이프 패션 브랜드 뮤트뮤즈와 컬래버레이션 전시를 연다. '내가 노란색을 더하면 내 작품이 되는가?'라는 슬로건으로 오래된 책이나 사진에 노란 조끼를 덧붙인 'Add Yellow' 프로젝트의 대표적 수심 점을 서울 성수동의 감각적인 팝업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7월 31일까지 문의의 mule-muse.com



알부스 갤러리 〈미피와 친구할래요?〉
국내 최초의 일러스트레이션 전문 갤러리인 알부스 갤러리는 개관 2주년을 맞아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미피(Miffy)의 일러스트레이션 전시를 진행한다. 미피를 창조한 디 브루너가 만든 미피 그림책 원화와 드로잉 60여 점, 세계 각국의 언어로 출간된 그림책, 포스터, 책 표지, 실크스크린 35점을 통해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 예술가로서 그의 다양한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기간 8월 31일까지 문의의 albusgallery.com



갤러리바론 〈시그니스 루프〉
평면 회화를 매개로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활약하는 젊은 작가 5인의 대표작을 전시한다. 배운환, 알렉스 차베스, 유이치 히라코, 미사키 가와이, 리누스 반 데 벨테가 참여했다. 독창적 작품 세계를 통해 다층적으로 분화하는 동시대 화가의 지향점을 모색할 수 있다.
전시 기간 7월 31일까지 문의의 gallerybaron.com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바비라 크루거: FOREVER〉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미국 개념주의 예술가 바비라 크루거(Barbara Kruger)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을 연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병치한 광고 형식의 작업으로 알려진 작가는 간결한 동시에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 대중매체 속 욕망, 소비주의, 전제, 계급 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담아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42점의 작품은 대형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작업 유형을 포함하며, 작가의 첫 번째 한글 신작을 최초로 공개한다.
전시 기간 12월 29일까지 문의의 apma.amorepacific.com



송은아트스페이스 〈Summer Love: 송은 아트큐브 그룹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치른 작가 16인의 단체전으로, 공간 유연한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해온 송은문화재단의 결실을 되돌아보는 자리. 전시 제목 'Summer Love'는 열정적이면서 아련한 젊은 시절의 사랑을 의미하며, 이는 전시와 관계된 작가들의 모습과도 닮았다. 다양한 주제 의식과 매체를 다루는 참여 작가의 작업을 통해 동시대 젊은 작가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 기간 9월 28일까지 문의의 songeunartspace.org



국립현대미술관
〈박서보: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박서보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다룬 시기(원형질, 유전질, 초기 모법, 중기 모법, 후기 모법)로 나눠 조명하는 대규모 회고전. 1950년대 초기 작품부터 2019년 신작까지 70여 년의 화업을 밀려낸 1백29점의 작품을 소개한다. 관객이 참여하는 작가의 대화, 큐레이터 토크,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박서보의 작품 세계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 기간 9월 1일까지 문의의 mmca.go.kr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332-2700



KEIRA KNIGHTLEY

CHANEL

THE NEW J12
IT'S ALL ABOUT SECONDS

NEW SELF-WINDING MANUFACTURE MOVEMENT
HIGHLY RESISTANT CERAMIC WATCH. SWISS MADE. 5-YEAR WARRANTY.